



논설

좌로 이동하는
정치담론
우로 이동하는
운동정치

▶ 1~3면

특별연재

일보전진
이보후퇴

▶ 3~15면

여기 이사람!

민간사찰피해자
김종익

▶ 16~17면

해외논쟁

우리를 만들어 낸
역사적 순간

▶ 17~32면

소식

피델카스트로의
편지

▶ 32~36면

一派萬波

일파만파

ilpamanpa@gmail.com

좌로 이동하는 정치담론, 우로 이동하는 운동정치

대한민국 정치화두로 부상한 '공정한 사회'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공정한 사회'를 제기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그의 길고 긴 거짓말 리스트에 또 하나가 추가되었구나'라는 반응이었다. 민주당, 민노당 등 야당의 공격 포인트도 '강남 부자들의 대변인인 MB가 공정한 사회를 거론할 자격이 없다', '믿을 수 없다'는 것으로 내용에 앞서 진정성에 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어진 총리 등 공직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한결 같이 후보자들이 추악한 부동산 투기와 온갖 편법 재산형성의 주인공들이 밝혀지면서 시민들의 입에서 '이게 무슨 공정한 사회냐'라는 말이 나왔을 때, 밀어붙이기의 달인 불도저 MB는 뜻밖에도 후보자들을 낙마시켰다. 또한 유명환 장관의 딸 특채 사건이 터지자마자 속전속결로 장관을 갈아치웠다. 전례 없는 이러한 조치는 '공정 사회론'이 단순한 일회용 정치 슬로건이 아니라 집권 후반기 MB의 전략적 정치담론임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대목이었다.

좌로 이동하는 보수세력의 정치담론

이명박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다. 친서민 정책을 설명하면서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돈이 없어 배우지 못한다면 이는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라고 까지 말했다. 민노당의 무상의료, 무상교육 슬로건을 연상시키지 않은가. 한편 공정사회론이 정치적 화두로 부상하자 'MB의 공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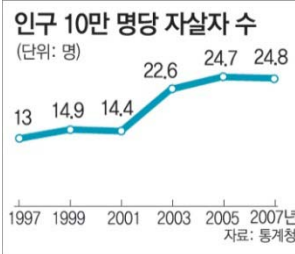
사회론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던 민주당도 '공정 사회론'에 가세하기 시작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선 중인 모든 후보가 일제히 '복지국가'를 들먹거리고 있다. 심지어 '담대한 진보'를 표명한 정동영은 부유세 도입마저 주장하고 있다. 분단 50년만의 진보정치의 성과라던 민노당 권영길의 상징이었던 부유세가 이제 보수정치인의 입에서 거론되리 만큼 정치담론이 좌로 이동하는 것이다.



'공정 사회론'의 동력은 요동치는 바닥 민심

이렇듯 보수정치의 좌로 이동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이는 두말할 나위 없이 경제위기로 인한 고통으로 미치고 환장하는 바닥 민심을 반영한 결과이다. IMF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양극화 속에 고통 받은 대중의 정서는 세계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급격히 동요하고 있다. 삶의 한계상황에 봉착한 민중의 요구와 지향을 끌어안을 급진적 정치세력의 부재 속에 대중의 정치지향은 시계추처럼 좌우로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민심은 62 지방선거에서 MB와 한나라당을 심판하더니, 한 달 후 치러진

728 보선에서는 야당으로부터 매몰차게 등을 돌렸다. '공정 사회론'은 이런 현실에 분노한 대중의 정서를 잡기



위해 우파가 정치담론을 좌로 이동시킨 결과물인 것이다. 10대부터 30대에 이르기까지 자살율이 모두 세계 1위라는 통계 수치가 입증해 주는 바처럼,

지금 우리 사회 바닥 민심의 흥흥함에 대해 더 이상 어떤 설명이 필요하겠는가!

경제위기로 무너진 중산층의 불만에 대한 우파에게모니 공세 '공정한 사회'

주지하다시피 파시즘의 온상은 세계대공황 과정에서 급격히 무너진 자영업자와 사무 전문직 등 구 중간계급이었다. ("독일 나찌의 대중적 기반은) 한 쪽의 바위 같은 대기업과 다른 한 쪽에서 확고한 지위를 가진 부상하는 대중적 노동운동 사이에서 압박감을 느끼면서 경제위기로 거듭 사회적 지위가 하강하는 중산층의 분개에 있었다"는 에릭 홉스봄의 지적대로 지금 한국 사회의 거대한 위기 앞에 흔들리는 대중 정서를 자신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우파 헤게모니 공세가 바로 '공정 사회론'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칼끝은 결국은 지금과 같이 뚝뚝미지근한 노동운동을 겨냥하게 될 것이다. 부조리한 사회를 바꿀 힘도 의지도 없으면서 그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만 안주하는 노동운동을 말이다.



공정사회론의 허구성 폭로만으론 불충분

생각해보라! 매일 삶이 죽을 맛이어서 자살을 고민하는 자영업자가 '대기업의 SSM 진출 뉴스'와 '기아차노조가 임금인상 투쟁을 통해 2000만원의 성과급을 챙겼다'는 보도에 접해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이들에게 이 사회는 뭔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된 것으로 느껴질 터이고 자연스레 '공정한 사회론'에 공감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MB의 공정사회는 거짓'이라며 반대하는 대공장 중심의 민주노총에 대해서 오히려 '공정사회의 반대자'라는 인식이 각인되기 십상이다. 따라서 'MB의 공정사회론은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는 민주당류 혹은 반MB 연합 수준의 정치선전만으로는 동요하는 민중이 우파로 견인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위기라는 지금의 정세 속에서 진정한 공정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돈 중심 세상에서 인간 중심 세상으로 사회원리를 급진적으로 변혁해야 한다는 혁명적 선전 선동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위기 속에 담대한 보수정치, 소심한 운동정치

경제 위기로 무너진 대중의 정서를 끌어안기 위해 우파가 일제히 담론을 좌로 이동시키는 정세 하에서 전통 운동 진영의 행보는 소심하게 우로 이동하고 있다. 이른바 반 MB 연합이 그것이다. 물론 '지금의 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곧 바로 1929년 대공황 때처럼 붕괴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동시에 80년대 이후 30여년간 신자유주의 양극화로 인해 한 쪽에선 목을 대로 목은 과잉자본이 자산 거품 형태로 불안하게 존재하고 그 반대편으로는 처절한 빈곤의 공포가 자리하고 있는 모순 관계가 결코 몇몇 나라들의 재정정책에 의해 극복될 리 없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 아닌가! 따라서 지금의 불안정한 위기 정세에서는 반MB연합을 통해 중산층을 보호하고, 재정정책을 통해 민중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정치기획은 현실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국가경쟁력 강화를 통해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노자가 협력하자는 애국

주의적 노선에 노동운동이 발목을 잡으면서 급격히 무력해지기 십상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치 기획은 세계경제 위기의 주범인 자본가들과 노동계급 간의 근본적 차별마저 희석시키지 않는가! 따라서 작금의 위기가 세계 자본주의 그 자체의 위기임을 분명하게 선전하는 가운데 국가적 차원에서 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 노동계급이 취해야 할 정치방침이지, 자본주의 위기의 원인은 온데 간 데 없이 복지정책만을 내세우며 소심하게 반MB연합을 추진하는 것은 현 정세에 전혀 맞지 않는 실천인 것이다.

과감한 사상투쟁과 급진적 사회운동을 바탕으로부터 조직해야

지금 정세의 핵심은 세계경제 위기이다. 위기가 곧 혁명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1930년 세계대공황 과정에서 독일, 이탈리아 등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이 파시즘으로 경도되었다는 데서 이미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

던가! 세계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이에 지칠 대로 지친 대중이 계속 동요하는 가운데 이른바 '진보정치'가 한가하게 국가 차원의 복지정책에만 매달릴 때, 결국 대중이 극단적 국가주의와 호전적 민족주의에 건인되었던 게 바로 2차 대전이었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전 인류를 고통으로 내몰고 있는 이 위기의 근원이 자본주의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돈 중심의 양극으로 분열된 계급사회가 아니라 전 인류의 연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진취적 사상을 끊임없이 선전하면서, 동시에 떠오르는 화두인 '공정 사회론'을 계기로 경제위기 속에 무너지는 민중들의 삶과 결합하는 투쟁, 최저임금 실질화, 기본소득제 쟁취 등의 투쟁과 비정규직, 실업자의 조직화, 주거권 확보 투쟁 등을 조직하는 것이 지금 '공정 사회'를 화두로 과감하게 치고나오는 우파 헤게모니에 대항하는 좌파의 운동정치가 실천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특별연재 위기와 대안



일 보 전 진 이 보 후 퇴

금속산별노조의 파탄과 우리의 대응전략에 대하여

들어가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일보후퇴했다 이보전진하는 경우(개구리가 움츠렸다 더욱 높이 뛰어오르고, 79~80년의 민중의 저항과 패배가 향후 운동의 디딤돌이 된 것)도 있고, 일보전진해서 좋아했으나 이보후퇴한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등장은 우리에게 뭔가 전진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심각한 후퇴의 전주곡(신자유주의 정책의 능수능란한 집행과 노동-민중운동 세력의 철저한 분열 관철이라는 측면에서)이 되고 말았으며, 진보정당(구 민주노동당)-산별노조 건설이라는 양날개도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우리를 전혀 예상치 못한 곳(명실상부

한 산별노조 완성을 향해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시 기업별노조로 돌아갈 수도 없는)에 데려다 놓고 말았다는 사실이 이제는 점점 확실해지고 있다.

2006년 출범 이후 금속노조는 단 한 번도 산별교섭을 관철시켜내지 못하고 비틀거리더니 2009년 쌍용차 투쟁에서 그 조직력투쟁 능력의 바닥을 드러냈으며, 2010년 파상적으로 진행된 이명박 정권의 타임오프 문제를 핵심으로한 공세에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다.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던 큰 나무가 엄청난 태풍에 부러진 것 같지만, 깊이 들여다 보면 겉으로는 잘 드러나 있진 않았지만 나무는 안으로 이미 깊이 썩어 있었으며

큰 바람 한방에 처참하게 쓰러져 버린 것이다. 이러한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도 금속노조 지도부는 멀쩡한 척 되지도 않을 총파업 지침을 “회의석상”뒀다. 그야말로 현장의 조직, 투쟁 능력에 비추어보면 불가능한 조직상태인데 아는지 모르는지 그것이 궁금하다에서 내리고 있으며, 완성차 중심의 대기업 노조는 산별이고 뭐고 자기만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실상 금속노조 조직운영에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는 현대차노조는 타임오프 문제를 내년으로 미루고 나몰라라 도망친 상태이며, 어쩌다 보니 온갖 짐을 다 짊어지게 된 기아차 노조는 뛰어보기도 전에 퍼질러진 상황이다. 그동안 타임오프를 둘러싼 정권의 탄압에 맞서 싸우는 형국이었기에 말을 아꼈지만, 김영훈 민주노총위원장의 짧은 단식과 그 결론(타임오프 문제는 투쟁돌파가 어렵다. 금속 꼬라지를 보라. 무조건 투쟁, 투쟁. 저렇게 하면 안된다. 반 이명박 연대를 통한 민주당의 집권을 통해서만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풀 수 있다는 걸 단식을 통해서 깨달았다. 나 돌아가리라. 민주당 집권을 위한 반MB 연합의 완성을 위해서)을 보면서 더 이상의 침묵은 기회주의 진영과 한통속이게 됨을 절감하면서 이 글을 쓴다. ‘문지마 산별’노선을 밀어붙인 사람들이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나든가, 아직 금속노조 간부로 있는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의 과오는 없고 이명박의 탄압 때문이라고 변명하는 사이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철제빔이 부식된 고층건물을 해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지혜롭게 해체하지 않으면 주변의 집들마저 위험하다. 그러면 금속노조라는 고층건물이 어떻게 지어졌으며, 어떠한 위험에 처했는지 먼저 살펴보자.

1) 금속산별노조 건설 과정의 문제점

87년 노동자대투쟁 이래 한국노동운동에 선봉에 섰던 금속노동자들이 단일 산별노조인 금속산업노조를 15만 조합원의 이름으로 출범시킨 것은 2006년이다.



출범의 뱃고동은 요란했지만, 이 해 완성된 금속노조는 그 건설 과정과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토대(1950년에 터진 한국전쟁이 남긴 깊은 상흔은 아직도 한국사회 구석구석에 깊이 또아리를 틀고 강력한 영향력을 음으로 양으로 발휘하고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 이미 상당한 위기를 내포하고 있었다.

그 건설 과정에서는 1) 세계자본주의가 포드주의 황금기를 마감하고 신자유주의 공세가 극에 달한 시점이라는 국제정세에 너무 어두웠으며 2) 사회정치적 토대 및 한국노동운동의 뿌리깊은 흐름으로부터 한참 벗어나 있었으며(사회복지 안전망의 부재로 인한 문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의 미정착 상태로 인한 금속 노동자 내부의 임금복지의 상당한 격차 문제, 기업별노조 체계의 강고함, 특히 금속의 경우 자동차 완성사업장(현대,기아차) 기업노조의 절대적 영향력과 배타성문제 3) 전노협 정신의 왜곡과 후퇴에서 과정에서 시작된 노동해방 사상이념의 부재와 타락 4) 아래로부터의 단결과 투쟁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산별 건설이 아니라 소위 민주정부(김대중,노무현)와의 상호 절충에 의한 상충관료적 건설 방식 5) 당시 민주노총이 주축이 되어 건설한 민주노동당의 대중적 토대로 인식하고 무리하게 밀어부친 문제들을 심각하게 안고 있었다. 이렇게 겉으로는 거대한 함선이었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피로누적으로 큰 파도 한 방이면 두 동강이 날 정도로 취약한 상태의 금속노조였던 것이다. 출범 이후 4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중앙 산별교섭을 실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현할 어떠한 방법도,

전술도 부재했다. 심지어 노무현 집권 말기에는 상층중심의 성과주의(산별교섭 성사)로 인하여 양보교섭까지 추진하였으나 그마저 정권에 의해서 거부되었다.

거의 시가전을 방불케한 쌍용차 투쟁이나, 치열하게 벌어진 비정규직 투쟁에 대해서도 실질적 연대파업을 끌어내지 못하더니, 이명박 정부의 타임오프를 통한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다가 마침내 파산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그러나 금속노조 현 지도부는 묻지마 산별의 주동자들이었기에 그 누구도 금속산업노조의 문제를 솔직하게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못하면서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심각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 동지들! 과연 금속노조 사수는 민주적이며 금속노조를 비판하고 새로운 조직 형식과 내용을 고민하는 것은 허용인가?

2) 패배한 전투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전투에서 패배는 병가지상사(兵家之常事)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이라도 금속노조 건설투쟁으로부터 빠져린 교훈을 얻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것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전투에서의 패배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패배로부터 아무 것도 얻지 못하는 자세와 철학이 더욱 절망인 것이다. 이 전투(산별노조 건설과 그 파산)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이며, 무엇을 할 것인가?

‘묻지마 민주노동당’, ‘묻지마 산별’같은 양날개 노선은 더 이상 수습 불가이며, 그 이유는 첫째 자본주의 위기가 급격히 심화되는 상황에서 그것에 정면으로 맞서는 혁명적 정세관을 갖고 치밀한 전략전술로 맞서야 하는데 자본주의 황금기에 그것도 예외적으로 잘 나갔던 독일스웨덴 모델에의 집착하는 안이한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1980년대 이후 영국, 미국에서 시작된 신자유주의 물결은 이미 93년 김영삼 정부 시절에 한국에 상륙하고 있었고 97년 말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와 동시에 한국땅을 휩

쓸고 있었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인 금융화와 분절화가 급속하게 관철되는 상황(과거 민주노조운동의 한 축이 김대중 정부로 수혈 되어 노동운동 탄압과 회유에 앞장서면서 민주노조운동의 조직 역량은 치명적 손상을 입게된다. 1998년 2월 6일의 정리해고 법제화와 비정규 파견법 수용은 그 대표적 예이며 아직까지 그 후과가 미치고 있다)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조건에서 사회적 안정망이 갖추어지고 노동조합운동에 우호적인 강력한 사민주의 정당(민주노동당이 커지면 그리 될라나?)이 있을 때 가능한 산별노조 건설을 꾀했으니 그 결과는 뻔한 것이었다.

이 얼마나 참담한 패배인가? 그런데도 민주노동당을 축으로 민주노총, 진보신당 일부까지 거짓 진보를 내세운 민주당의 사탕발림에 속수무책이다. 노련한 낚시꾼 정동영은 ‘담대한 진보’라는 구호아래 반성문까지 쓰고 민주당의 모든 신자유주의 집행의 책임을 노무현에게 뒤집어 씌우고 반MB 투쟁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밑밥을 던지고 있으며, 또한 김대중-노무현시기에 수혈된 386정치권들은 감각있게 복지와 진보를 애드벌룬으로 띄우며 기득권 유지에 급급하고 대중적 힘에 대해서 불신하는 비겁한 노동-민중운동 지도부를 적극적으로 유인하고 있으며, 우리의 지도부는 최면에 걸린 것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다.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자들에게 비극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산별노조 건설과 그 파산에 관한 평가는 과거의 잘잘못 문제가 아니라 너무도 생생한 현재의 문제인 것이다.

우리가 이 전투를 통해서 배울 두 번째 교훈은 산별노조 건설론자들이 모든 운동의 위기를 기업별노조의 한계에서 찾는 어리석음을 범했다는 것이다.

2000년경부터 밀어붙인 묻지마 산별론자들의 논거는 기

업별노조의 한계 문제였다. 김영삼 정부 등장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에 근거한 공격과 현장에 뿌리내리기 시작한 관료주의적 사업행태로 인해 생기는 운동의 위기를 모두 기업별노조에서 생기는 문제로 밀어붙이면서 당시 노동운동 위기론쟁에서 산별건설 노선의 주도권을 장악한 것이다. 그렇다면 진짜 당시 노동운동의 위기가 모두 기업별노조의 한계였을까?

기업별노조의 한계라는 것은 93년 김영삼 정권 출범 이후 진행된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 현장이 분절화되고 무력화되는 것(95년 한국 노동운동의 본산이라 불렀던 현대중공업 노조의 무쟁의 선언은 정도의 차이일뿐 이미 무너진 노동운동 진영의 기세를 보여준 사건일 뿐이다)을 산별 건설론자들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한 것이다.



물론 1992~93년을 경과하면서 1987~91년 시기에 보여준 노동운동의 전투성, 민주성, 연대성, 자주성이 뚜렷이 약화되는 현상이 곳곳에서 벌어진다.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울산의 경우 현대중공업 노조가 세계화무한경쟁 논리에 굴복하면서 95년 윤재건 집행부 시절 무쟁의 선언을 하였으며, 그 후 현종은 집행부의 민주성 여하를 불문하고 파업 한번 해보지도 못했고 2004년 금속노조에서 제명되고 말았다.

이러한 전투성, 민주성, 연대성, 자주성 정신의 약화와 운동의 쇠락은 1993년 김영삼 등장 이후 벌어진 93년 현충련 연대투쟁 과정의 대혼란에서 발생, 심화 되었으며 95년 현자 양봉수 열사 투쟁, 96~97년 노개투, 98년 현대차 정리해고 분쇄투쟁 과정에서 정점에 달했다. 강조하건데 위의 결정적인 노동운동의 후퇴를 야기한 사건들에

서 기업별노조의 한계만을 읽는다면 이는 현실에서 크게 떨어진 판단이다. 오히려 1987년 이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아래로부터 투쟁과 대정부 투쟁, 민주주의 혁명,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기세 속에 성장한 노동자 대중들은 맛이 간 활동가, 지도부들의 관념적 체념(91년 소련 붕괴와 YS 문민정부 탄생에 따른 지식인 운동가들의 대혼란)을 넘어서 권력과 자본, 기회주의의 노조 지도부에 맞서 완강하게 버티고 있었다. 하지만 91년 소련 붕괴 이후 더 이상 혁명성을 상실한 학출들과 그들과 연관된 현장활동가들의 변절과 이탈, 대중적 배신이 거듭되면서 사실상 현장은 구명난 고목 상태로 전락한다.

그렇게 비틀거리는 중 1997년 12월에 밀어닥친 외환 위기와 그것을 역공의 발판으로 삼은 자본과 정권의 공세 앞에 거목이 쓰러지듯 현장은 무너지고 말았다. 무너지고 순치된 노동운동의 전망은 독일·스웨덴 모델이었는데 이게 더욱 문제를 악화시켜 지금의 상황에 이른 것이다.

모든 것을 산별 추진의 문제로 돌리는 건 억측이겠지만 조건과 상황에 걸맞지 않는 산별 추진으로 인하여 그나마 있던 역량이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진 것 또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중앙파 주도로 진행된 산별 전환 과정은 결국 김대중-노무현 정권과의 거래 속에서 2006년 완성차 대공장이 사측의 지원 아래 산별 전환이 이루어지고 복수노조 유예를 매개로 안정된 관계를 유지해 오다 이명박 정권 등장 이후 민주노총, 산별 자체의 와해를 목표로 덤벼들자 커다란 혼란에 휩싸인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위기를 기업별 체계에서 찾았기에 산별이 무너지자 정신적 공황에 빠진 것이다(산별이 건설된 적이 있거나 한 걸까?).

2008년에 발발한 세계경제위기가 먹구름이 걷히듯 개이는가 싶더니 다시 더불뎅 공포 앞에 선 지금, 우리는 오히려 조직 형식주의를 넘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던져 보아야 하지 않을까?

3) 혁명적 노동운동의 양날개론

노동자 운동의 직접적(당면, 개량적)과제와 근본적(장기, 혁명적)과제의 결합

우리는 길게는 91년 소련 붕괴 이후, 짧게는 95년 민주노총 출범과 IMF 사태 이후 일국적이며 노동조합 차원의 대응으로 노동자운동을 축소시켜 왔다. 이는 노동조합운동에 과도한 기대를 품는 쪽이나(몇몇 혁명적 정파는 노동조합은 개량화 되었다고 하면서도 중요한 순간만 오면 총파업을 들먹거리면서 되지도 않을 환상을 끊임없이 유포한다. 이것이 비난의 명분 축적용이라면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노조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노조가 무슨 혁명조직이냐고 반문하는 쪽도 대책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노동자계급이 탄생한 이래 노동자들의 직접적 이해에 결부된 투쟁과 조직, 그리고 자본주의 자체를 공격하고 전체 노동자들의 정치적 이해를 대변하는 투쟁과 조직이 동전의 양면처럼 역어서 자본과 정권의 공세에 맞서 왔다.

그러나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한국의 노동운동 진영은 거의 모두 노동조합운동에 몰입해 왔다. 민주노동당이라는 정치조직이 있었지만 오히려 민주노총에 견인된 당이었으니 왜곡된 경향은 더욱 심화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일국적, 노동조합적 - 의회주의적 운동은 산업이 호황이고 국가의 경제력이 세계적 수준에서 일정한 우위를 점하면 순탄한 항해를 계속하며 뭔가 잘 나가는 듯이 보인다. 특히 민주노총에 소속된 대공장, 대기업의 상황은 더욱 고립된 섬으로서 상대적 안정감을 누려 왔으며 그에 대한 보상으로 자본 진영의 순차된 행보를 해온 것이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위기가 닥쳐오면 하루아침에 대혼란

에 빠지며 헤매게 된다.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가 곧바로 노동운동의 위기로 전이되는 것은 “자본주의 위기”를 고려하지 않는 조합주의적 - 의회주의적 노동자운동에서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는 이제 1930년대 대공황을 능가할 정도의 세계경제위기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 위기는 1970년대 이후 시작된 이윤율의 장기 저하가 대공황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왔던 신자유주의의 약발이 모두 소진된 끝에 발생한 위기라는 점에서, 또 ‘자본 그 자체의 한계’에 피크 오일, 환경 재앙과 같은 ‘자본 외부의 한계’가 동시에 겹쳐지고 있다는 점에서, 1930년대 대공황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



1930년대 대공황 당시에는 로자 룩셈부르크가 자본의 확대 재생산의 ‘탈출구’라고 보았던 “비자본주의적 환경”이 아직 남아 있었다면, 오늘날 위기는 세계화, 정보화, 금융화와 같은 위기로부터 ‘비상구’들이 거품 붕괴와 함께 모두 사라

진 상황에서 터졌기 때문이다. 외부로의 출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배계급은 오로지 체제 내부, 즉 노동자 서민대중과 주변부 민중에 대한 초과착취와 제국주의적 수탈이라는 야만적 수단을 통해서만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위기가 심화되면서 세계 도처에서 네오파시즘과 군국주의의 부활, 전쟁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

예컨대 사미르 아민(Amin, 2008)은 세계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미국 등 제국주의 열강들이 한정된 자연자원, 특히 석유 등 화석연료를 배타적으로 독점하기 위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한다. 오늘날 세계는 지난 극단의 세기와 같은 대공황과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고 있는 듯하다.

임박한 세계대공황이 지난 세기처럼 인류사상 최악의 야만으로 귀결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대안은 오늘날 진보진영 다수가 여전히 집착하는 케인스주의나 유럽식 사민주의가 아니라 고전 마르크스주의의 대안, 즉 노동자 대중의 반자본주의 혁명뿐이다. "사회주의인가, 야만인가"라는 로자 룩셈부르크의 경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다가오는 시점이다." - 정성진《마르크스주의 연구》제5권 제4호(2008년) 머리말

다른 그 어느 때보다도 세계경제의 위기가 심각하게 닥친 지금, 노동조합이라는 노동자 운동의 대중적 무기는 상당히 무력해지며(단위 사업장에서의 임금 인상은 거의 불가능하다, 자본과 정권의 이해에 복무하는 소외된 노동자를 외면하는 댓가로 주어지는 인상말고는) 혁명적, 정치적 조직에 의해서 옹호되고 연대되지 않으면 붕괴 위험에 처한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자기 스스로에 의해서 쟁취해야 하는 전제 속에서 이제 노동자들은 의회적, 개량적 정치가 아닌 자본주의 자체의 폐절을 의회주의적 수단에 제한하지 않는 혁명적 조직 건설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이 위기의 시대는 노동조합이라는 무기를 약화시키지만 역으로 혁명적 정치조직 건설과 강화를 유리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 조직의 성격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로 미룬다)

노동조합운동의 위기가 경제위기 속에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르크스의 고전적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자.

"이상의 몇 가지 암시로도 현대 산업의 발전 자체가 저울추를 점점 노동자에게는 불리하고 자본가에게는 유리하게 기울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점, 따라서 자본주의적 생산의 일반적 경향은 평균 임금 수준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떨어뜨린다는 점, 다시 말해 노동의 가치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최소 한계까지 떨어뜨린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충분할 것이다. 현재도에서 사태의 경향이 이러하다고 해서, 이것은 노동자계급이 자본의 침략을 반대하는

저항을 포기해야 하며 자신들의 처우를 일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가끔씩 주어지는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가? 만약 노동자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파탄자의 무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나는, 임금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동자의 투쟁은 임금 제도 전체와 분리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점, 임금을 인상하기 위한 노동자의 노력은 100 가운데 99가 주어진 노동 가치를 유지하려는 노력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노동의 가격을 두고 자본가와 싸워야 할 필요성은 자신들을 상품으로 팔 수 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조건에 내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고 생각한다. 만약 자본과 일상적으로 충돌하는 데서 비겁하게 물러난다면, 노동자들은 틀림없이 더 커다란 운동을 일으킬 자격을 스스로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임금 제도와 관련된 전반적인 예측 상태는 아예 젖혀 놓더라도 노동자 계급은 이러한 일상적 투쟁의 궁극적 효과를 과대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결과와 싸우는 것이지 그 결과의 원인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점, 하향 운동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지 그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점, 완화제를 쓰는 것이지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그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그들은 거침없는 자본의 침략이나 시장의 변화로부터 끊임없이 생겨나는 이 피할 수 없는 유격전에만 전적으로 매달려서는 안 된다. 현 체제는 노동자에게 온갖 곤궁을 강요하지만 동시에 사회를 경제적으로 개조하는 데 필요한 물질적 조건과 사회적 형태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 한다. '공정한 노동에 대해 공정한 임금을'이라는 보수적 표어 대신에 그들은 '임금제도 철폐'라는 혁명적 구호를 자신들의 기치에 써넣어야 한다." - 칼 마르크스, "임금가격 및 이익"

노동운동의 근본적 과제는 임금노동 자체의 철폐이며 자유로운 인간들의 연합에 의한 '함께 사는 세상'의 건설 과정이다. 자본주의는 거대 생산시설에 의한 고에너지

소비, 대량생산 대량소비 사회이다. 생산의 사회성과 소유의 사적, 자본주의적 성격이라는 모순으로부터 1)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 간의 적대적 모순이라는 계급적 모순이 발생하며 2) 단위기업 생산의 계획성과 전 사회적 생산에 있어서 무정부성이라는 경제적 모순이 발생한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말할 때 첫 번째 계급 모순만이 아니라 두 번째 경제적 모순도 반드시 지적해야 한다. 그 래야만 이 경제적 모순의 자기 운동이 필연화시키는 “자본간 경쟁”의 작용 및 그에 의한 자본축적을, 자본축적에 따른 과잉 생산과 공황 등을, 생산의 집적과 집중에 의한 독점화 및 제국주의화라는, 식민지와 신식민지 모순의 탄생, 마침내 자본주의의 자기 파멸을 설명할 수 있다. 혁명운동은 계급 모순과 경제적 모순이 얹히고 설켜서 움직이는 역동적 과정이다(1917년 제국주의 전쟁을 노동자계급에 의한 혁명적 내전으로의 전환을 내걸은 볼셰비키의 정세, 전술관은 가장 모범적이다).

이러한 전 지구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역동적인 자본주의 모순에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을 직접적 목표로 하는 노동조합(그것이 제아무리 대규모 산별노조라 할지라도)만을 갖고는 절대 대응이 불가능하며, 노예적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한국에서 1980년 광주항쟁 이후 87년을 거치면서 폭발적으로 터져 나온 노동자운동은 3,000여 건의 투쟁과 1,000개가 넘는 민주노조 건설이라는 성과로 귀결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러한 노동조합운동의 비약적 발전은 오히려 노동조합 건설이라는 직접적 목표 이상으로 당면한 반독재 민주주의 혁명, 장기적으로 자본주의 폐절, 혁명적 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하는 정치적 조직들의 학습과 조직화, 투쟁 속에서 가능했다. 87년 6월 민주항쟁의 역할 또한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노동운동의 엔진에 해당하는 혁명적 정치운동이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서서히 약화되어 오다 95년 민주노총 출범 이후 현장에서 사라진 것 이것이 산별노조라

는 형식이 운동에 도움이 되지 못한 주체적 요인일 것이다(다른 하나는 신자유주의 공세와 한국사회의 사회안정망 미흡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노동조합이라는 외발 공격에서 벗어나 혁명적 조직에 의한 투톱 공격에 나서야 할 때이다.

정규직은 맛이 갔고 비정규직이 운동의 미래라는 주장이나 대공장 정규직은 보급로를 챙기면 되고 신참들이 공격로를 책임진다는 ‘역할 분담론’은 노동조합 중심에 갇힌 전투성만을 혁명적이라 생각하는 발상에서 가능한 이야기이다.

오히려 80년대 이후 적극적 투쟁에 나섰고 노동시간 단축, 경제적 여유가 생긴 정규직 노동자들을 혁명적 조직의 주체로 발전하지 못한 노동자 정치운동의 한계를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거세게 몰아치는 바람은 우리가 쌓아 놓은 성과를 모두 휩쓸어 갈 수도 있지만 거대한 연을 하늘 높이 띄울 수도 있는 것이다. 경제공황과 노동조합, 의회주의적 정치운동의 위기 속에서 오히려 혁명적 비상사의 계기를 잡아 보자. 경제위기가 노동운동의 위기로 온 데에는 대중들의 책임도 있지만 노동조합-의회주의 운동에 매몰된 운동방식도 뒤돌아 보고 되짚어 보아야 할 것이다.

개량적 양날개를 접고 혁명적 양날개를 활짝 펴서 세계 경제위기에 정면으로 맞서자.

4) 금속노조의 현 상태에 대한 진단

선택의 폭은 넓지 않다. 우리는 궁지에 몰렸으며 그 타개책은 우리가 쓸 수 있는 힘부터 다듬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미 산별노조는 실질적으로 파산했다. 지금 파업지침을 내리고 성명서를 내는 금속산업 집행부는 사실상 소속 금속단위노조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뿌리가 잘린 장식용 트리일 뿐이다.

긴 글이지만 비교적 솔직하게 금속노조 현상태를 진단하고 있는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이 쓴 글을 통해서 금속상태를 진단해보자

(《쟁점과 전망》, 2010/04/30)

“금속노조 조직문제에 대한 진단과 향후 과제에 대한 소고”

이상호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06년 통합대대를 거쳐 금속노조는 산별노조의 완성을 목표로 한 15만 조직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이는 지난 5년 동안 어려운 조건 하에서도 산별노조의 대의와 기풍을 지켜온 3만의 구 금속노조와 기업별로 분산되어 있던 대기업 노조가 통합된 단일조직을 통해 산별노조운동의 새로운 장을 개척하겠다는 결의의 표현이었다. 또한 15만 조직의 건설은 기존 노조의 조직전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후 금속산업, 더 나아가 제조업의 미조직 사업장과 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한 교두보로 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희망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기존 노조의 조직전환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더 심한 고통을 이겨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데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간 금속노조는 기본적인 사업방향과 활동내용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세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조직내부의 동의수준을 높이고 아래로부터 추진력을 확보하기 보다는 조직형식과 교섭성고에 매몰되는 방식으로 활동을 해왔다. 또한 중앙교섭의 실패와 무력화, 기업지부의 해소를 둘러싼 난맥상으로 인해 금속노조의 상과 전망에 대한 조합원들의 혼란과 불신은 급속히 확산되었다. ... (중략) ... 한마디로 현재 금속노조는 형태적으로 산별노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신뢰와 규율 측면에서 심각한 위기상황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금속노조는 어떤 조직적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가?

먼저 15만 금속노조는 조합원 구성에 있어 구조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통합산별 이후 양적인 증가세가 계속 정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과 조합원 구성에 있어 커다란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현재의 금속노조는 여전히 자동차업종, 현대자동차그룹, 정규직 40대 중반 남성 중심적 조직에 머물러 있다. 또한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아직도 미편제 사업장으로 대부분 남아 있거나, 기업지부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반면, 수많은 영세사업장의 경우 내외적 조건변화에 따라 조직적 안정성이 큰 변동을 보이는 양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조직내 불균등성이 사업장과 인적 특성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규정된 제약조건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조건이 유발시키는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관건적 요인은 조직구조와 활동에 있다.

하지만 금속노조의 조직구조와 활동은 여전히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 보다 소위 '다수자의 이해와 요구'를 중심에 둔 관성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조직구성원의 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이들의 이해와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재 금속노조의 상황은 모든 의사결정과 집행이 이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금속노조 위에 기업지부가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떠돌고 있다.

둘째, 금속노조에 대한 인식편차가 확대되고 있다. 금속노조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조합활동가들의 일반적인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세부사항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다. 특히 산별노조가 지향해야 할 조직적 목표로 예산과 인력의 집중을 통한 조직확대전략을 강조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현실적으로 기존조직의 내부강화와 일치를 중요시하는 주장이 동시에 존재한다. 즉 주체적 조건과 역량의 한계로 인해 일단 4만 구 금속과 11만의 전환노조간의 '융합'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산별노조의 위상에 맞게 미조직, 비정규, 영세사업장의 '조직화사업'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볼 때 전자의 의견이 더욱 강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두 가지 견해는 상호충돌하는 지점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금속노조의 조직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셋째, 금속노조의 성과와 필요한 변화지점에 대한 의견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역지부 활동가들은 4만 구 금속노조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15만 이후 금속노조의 상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이와 달리 기업지부를 중심으로 대공장노조의 간부들은 조직전환 이후 발생하고 있는 애로점과 부담감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15만 이후 구 금속과 전환노조간의 사업과 활동의 공유, 투쟁의 결합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더 큰 문제는 15만이 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새로운 조직적 관점에서 논의하기 보다는 기존 소속(구 금속/전환노조)과 경험에 근거하여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현재 금속노조의 조직적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 기업지부로 의 편중과 기업지부 관행의 존속, 공동 요구와 활동의 부재, 조선/철강/비정규 등의 소외되는 집단의 발생, 지도력과 정파갈등과 같은 조직운영의 문제, 전체 노동/민중운동에서의 역할 미비 등이 주로 지적된다. 하지만 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조만이 아니라 지부, 지회, 활동가와 조합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스스로 찾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넷째, 조직력의 약화원인과 그 극복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활동가는 물론, 조합원조차 현장조직력과 투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 원인에 대해서 조합원의 경제주의와 개인주의화, 구조조정과 고용조정 압력에 휘둘린 결과, 사회 및 현장분위기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결과, 노동자의 정체성과 계급의식의 부족, 교섭주의와 투쟁회피, 중앙의존과 현장토론의 부재 등을 주로 언급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동가대오 발굴과 간부육성, 현장활동의 방향과 사업의 변화, 현장과의 소통과 현장토론의 일상화 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어디에 집중하고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섯째, 가장 민감한 문제는 역시 기업지부 해소와 지역지부의 편재방안이다. 기업지부 해도시 기업지부의 장점을 버릴 수 없다는 기업지부 간부의 의식이 여전히 팽배한 반면, 지역지부 간부들은 이를 '기득권의 집착'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재 가장 첨예한 쟁점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점은 지역지부와 기업지부의 통합문제는 조직운영과 교섭구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 '권력자원'이 집중된 대기업에 대해 어떤 조직적 재구성전략을 추진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아무리 좋은 해소방안이 제출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지부 조합원과 간부들의 기존 이해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의식전환과 결단이 없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아주 깊다. 더 큰 문제는 과도기적 방안으로 제출되고 있는 '대표지회' 구성 및 피/선거권의 부여문제를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하고 권력배분문제로 활용하려는 관성적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지역지부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강화방안과 새로운 전망을 제시할 수 있어야 기업지부해소의 의미가 더욱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기업지부 해소만이 아니라, 기존 지역지부의 재설정(통합과 축소)방안도 동시에 제출되어야 기업지부 간부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지적에서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금속노조운동의 조직적 기풍문제이다. 투쟁과 연대의 상징이었던 금속노조가 현재 보이고 있는 모습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 투쟁에 있어 합법주의와 지침에 매몰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조합원의 동의와 결합이 전제되지 않은 투쟁남발주의에 대한 지적도 동시에 존재한다. 연대활동의 경우 현재 상태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다수를 점유하고 있다. 모범적인 연대활동의 사례 또한 분명히 존재하지만, 구조조정 및 장투사업장의 미해결, 더 나아가 단위사업장 내부의 갈등과 분열 등이 부각되면서 금속노조의 조정력과 추진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조직운동의 기풍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의 또 다른 면은 '의사결정에 따라 집행이 되지 않는다'는 간부 활동가들의 절박한 호소에서 확인된다. 단위사업장 현장은 경제주의와 실리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반면, 금속노조의 지침은 실효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신뢰복원과 내부단결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조직운동의 기풍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의 또 다른 면은 '의사결정에 따라 집행이 되지 않는다'는 간부활동가들의 절박한 호소에서 확인된다. 단위사업장 현장은 경제주의와 실리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반면, 금속노조의 지침은 실효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신뢰복원과 내부단결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조직적 문제로 인해 금속노조는 현재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고 있다. 그 현실은 최근에 조사한 파견대의원과 평조합원에 대한 의식조사에서 확인된다. 특히 금속노조에 대한 신뢰도 지수는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다. 대의원과 조합원 모두 중간치 보다 낮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의원의 경우 약 71%만이 금속노조에 대해 신뢰도가 높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는 활동가는 물론, 조합원들이 원인에 대한 해석과 진단이 내부 소속과 위치에 따라 다르다 할지라도 금속노조가 처한 신뢰위기상황을 냉정히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전반적인 수치에 있어 지역지부/기업지부, 그리고 대의원과 조합원간 큰 편차는 없지만, 구 금속노조 이후 오랜 기간 금속노조를 지켜온 지역지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신뢰도가 나타나고 있으며, 평조합원 보다 노조의 핵심간부층인 대의원의 신뢰도가 더 떨어지는 것은 눈여겨 볼 지점이다.

이는 단결과 연대의 골간을 이루고 있는 지역지부 조합원과 간부활동가들이 금속노조에 대한 열의와 희망이 강했던 만큼 현재 상태에 대한 실망감 또한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즉 경제적 실리주의에 더욱 기울어가는 대공장 조합원들의 정서와 이해만을 쫓아가는 방식으로 금속노조의 사업과 활동이 편중될 경우 산별노조운동으로서 금속노조운동은 그 생명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금속노조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은 원인에 대해 조합원은 현장정서를 무시하고 과도한 사회정치적 투쟁을 벌이는 점(40.4%)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제기하는 반면, 대의원들 역시 이 점(29.0%)을 가장 많이 지적하긴 했지만, 금속노조가 말로는 투쟁을 남발하나 실제로 책임지지 않는 태도(26.3%)와 현장성에 기반한 민주적 소통구조 문제(20.8%)를 지적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금속노조의 사업과 활동이 사업장단위 현장의 이해와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현장정서'와 '현장성'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자칫 이 문제를 기존의 관성과 관행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이는 현장의 이해와 요구는 모두 옳고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현장물신주의'에 빠지게 된다. 산별노조는 기업별 요구를 넘어 사회적 투쟁과 산업적 대안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만일 금속노조가 기업별 노조시절의 사업장 현장문제에만 머무르고 조합원들의 '고충처리기관'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이는 산별노조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스스로 버리는 꼴이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현재 금속노조에게 필요한 것은 현장문제를 공장만이 아니라, 지역과 산업, 더 나아가 사회적 차원으로 조합원들의 인식과 관심을 확장시키는 것이다.

또한 금속노조의 내부단결을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에 대해 정파운동과 기업/지역지부의 갈등을 주로 지적하고 있다. 지역지부 파견대의원들은 금속노조의 내부 단결을 위해 해결해야 할 조직적 과제로 편협한 정파운동(22.9%)을 많이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파활동에 대한 폐해에 대해 평조합원들의 문제의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10.7%)

이다.

이는 조합원들과 달리 정파활동가이기도 한 대의원 스스로가 지난 수 년간 금속노조의 사업과 활동에서 발생한 소모적인 논쟁과 조직적 난맥상이 대부분 오랜기간 동안 누적되어온 조직 내외적 정파활동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며, 현재 금속노조가 봉착하고 있는 의사결정과 집행과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파활동에 대한 발본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상 정파조직이 이념과 노선의 혁신을 위한 발원지로서 그 역할을 상실하고 합종연횡에 의한 '선거조직'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정파조직원이기도 한 대의원들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파활동의 순기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공조직체계에서 정파활동의 해악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내부단결을 가로막은 중요한 요인으로 지역지부 대의원들은 지역지부와 기업지부간 갈등(21.6%)이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기업지부의 경우도 지역지부와 기업지부간 갈등(29.4%)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하고 있다. 사실상 이 문제는 금속노조 내부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동시에,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기업지부와 지역지부간 존재적 차이와 경험적 이질성은 결국 현실론과 원칙론의 대립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업지부 해소와 지역편제가 지체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기업지부의 지역편제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기업지부 대의원들은 기업지부 지역편제방안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아서(43.1%)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기업지부 지역편제 후 지역지부에 대한 전망, 전략이 취약해서(29.4%), 기업지부 당사자의 이해와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23.4%)순으로 응답했다. 하지만 지역지부의 대의원들은 기업지부 당사자의 이해와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지부 재편이 늦어진다(63.6%)라고 지적한 것이 가장 많았으며 기업지부의 지역편제방안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9.1%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러한 응답결과만 가지고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쉽지 않다. 기업지부 활동가들과 조합원들이 주장하는 부합하지 않는 현실은 무엇이고 왜 기업지부 해소에 대한 이해와 의지가 부족한 것인가를 해명해야 한다. 그 현실론이 예전 기업별 노조시절 지니고 있었던 기득권을 모두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는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산별노조운동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업별 노조를 극복하고 산별노조로 조직전환을 한 이유가 바로 그 종업원의식을 조장하는 현실적 조건을 주체적 조직전략을 통해 돌파하는데 있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편 기업지부 조합원과 활동가들이 산별노조에 대한 이해가 미비하고 지역지부로 재편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하는 것으로 이 문제가 풀리는 것 또한 아니다. 소위 '묻지마, 산별'과 같이 산별노조가 되면 모든 것이 지금 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조합원을 현혹하기 보다는 산별노조로의 조직발전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고통과 희생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대와 단결이라는 민주노조운동의 기본정신을 잃어버려서는 안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전환과 결의가 전제되어야 지역지부로 재편을 유보하던 '대표지회'방식을 통해 과도기를 설정하던 재벌 대기업과 대공장노조운동은 금속노조에서 자신의 본연의 역할과 위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일반조합원들은 금속노조의 내부 단결을 위해 해결해야 할 조직적 과제로는 현장과 조직내 의사소통 부재 문제를 지적한 이들이 26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지역지부와 기업지부간의 갈등 해소(226%), 개인주의적 조합원의 의식 문제(190%), 현장성 없는 관료화된 간부들(164%), 편협한 정파운동(107%), 정규직 조합원들의 이기주의(52%)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지부와 기업지부간 갈등 해소에 대한 의견이 높은 것은 파견대의원들과 비슷하지만, 정파운동에 대한 지적보다 조합원들의 개인주의적 의식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조합원 스스로가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조건 향상에 따라 실리주의적 성향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러한 실리주의적 성향이 기업별 종업원의식과 연동되어 더욱 강화된다면 이는 내부단결의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결국 조합원들이 지적하고 있는 조직내부의 의사소통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는 물론, 기존의 복잡다단한 의사결정구조와 집행구조를 보다 간소하게 단순화시켜 의견수렴과 지침수행이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금속노조에게 다가올 새로운 도전을 진정성있게 준비해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속노조는 현재 조직적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봉착하고 있다. 이 위기는 흔히들 이야기하는 기업지부의 지역지부 편재문제를 둘러싼 혼란에 그치지 않는다. 사실 조발특위를 통해 올해 정대까지 확정해야 할 편재방안에 대한 논란은 내용의 이견 보다는 정치적 타협 여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금속노조가 봉착하고 있는 주객관적 조건은 물론, 이 문제를 둘러싼 논의구도와 수준을 보더라도 내용상의 큰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 만큼 현재 조발특위의 논의를 거쳐 정대에 상정된 재편방안은 이미 그 내용의 범위와 수준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기업지부의 지역지부 재편방안이 현재, 아니 향후 예정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새로운 노사관계지형에서 금속노조가 부딪힐 조직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묘약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현재 진행 중인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한 방어적 투쟁이 일정한 성과를 거둔다고 하더라도 금속노조의 기존 조직구조와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변화된 조건 하에서 전임자, 더 나아가 조합활동가와 평조합원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종합적인 평가와 현실적인 대안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금속노조는 암울한 퇴락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더욱이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라는 '승자독식주의'의 노사관계가 전면화될 내년 7월 이후를 대비하여 금속노조의 조직강화, 확대 및 혁신방안을 지금부터라도 본격적으로 토론하고 준비해야 한다. 만일 금속노조가 조직보전의 논리, 기득권의 유지라는 수동적인 대응에 머무르게 된다면 그 결과는 뻔하다. 일정기간 거대노조와 다수노조라는 장점을 활용하여 교섭지분을 확보하고 버티기식으로 그 생명력을 유지할 지 모르지만, 산하 사업장과 기업단위의 교섭을 단순히 지원하는 허울뿐인 '연맹체'로 회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기존 조직의 재편에 함몰되어 있는 금속노조의 조직발전 논의를 기존 조직의 혁신 프로그램을 통한 조직강화, 미조직 사업장과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포괄적인 조직화전략, 금속을 넘어서는 제조업 전 영역에 걸친 조직재편 등으로 확장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조직발전방안에 대해 금속노조의 개별 주체들이 얼마나 진정성있게 자신의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자하는가에 따라, 과도기에 요구되는 조직 내부의 인내와 희생을 어느 정도 감내하는가에 따라 금속노조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이상 인용 끝)

이상호 연구원이 이 글을 쓴 4월만 해도 우려 사항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참담한 현실이 되어서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다. 혼란을 넘어서 금속노조 조직은 사실상 이번 임단투와 타임오프 투쟁에서 최악의 행보를 하게 되면서 사실상 파산하였다.



5) 전노협 운동의 계승과 혁신으로 위기를 돌파하자

현재와 같은 금속노조는 조합원 대중들에게 엄청난 불신만 가중시켰고, 적들의 탄압에 무방비 상태이며, 기회주의적 활동가들에게 아주 신명나는 놀이터가 되었다. 현재 상태로는 더 이상 조직 운영이 불가능하다.

우리가 이 위기의 순간 다시 한 번 주목할 내용과 형식이 있다면 '전노협'일 것이다. 현재 금속노조 건설이 실패한 상황에서 가능한 조직 형식은 좋으나 싫으나 기업별 형식일 수 밖에 없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야 굴욕적으로 숙이고 들어가면 껍데기 산별을 하사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명박 정권 치하에서는 그것마저 불가능하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힘의 역관계 문제이다. 조직에 가장 위험한 것은 덩치만 크고 조직적 목표와 규율이 흩어진 상태이다. 이것을 오히려 지줄이라 하지 않는가. 물론 이러한 문제의식이 내용은 배제하고 산별이나, 기업별이나는 조직 형식 논쟁을 반복하자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러한 조직 형식주의의 해악은 묻지마 산별의 실패로 충분하지 않은가.

지금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조직 형식 문제가 아니고 조직의 내용이다.

정권과 자본의 무차별 탄압에도 불구하고 노동해방 사상을 전면으로 내걸고 노동자운동의 자 주성·민주성·연대성·전투성을 실천하면서 노동자계급이

기주의를 넘어 전 사회적 의제에 헌신적으로 앞장섰던 전노협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금 붕괴되고 있는 금속노동자운동, 나아가 한국노동자운동을 재건해야 한다.

물론, 전노협이 건설되고 활동했던 시기와 지금은 많이 다르다. 전노협 시절에 노동자들의 상태는 비교적 균질했으며 모두가 열악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단결과 연대가 지금보다는 수월하였다. 따라서 기업별 형식에 지역 협의체를 건설하여 중소, 영세, 비정규 노동자들을 초기업 단위노조로 조직하여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여야 한다. 현재 금속노조는 출범 이후 대공장 기업지부가 계속 유지되어 오면서 사실상 산별노조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심각한 불신만이 증폭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별이라는 허울 속에 안주하고 있다.

더 이상 이런 기만적인 체계로 가서는 안되고 가능하지도 않다. 한계점에 온 것이다. 이제 발상을 전환하여 현재의 기업지부 유지라는 조건을 역으로 활용해서 기업별노조 단위와 지역 협의체라는 전노협 조직 형식으로 퇴각하자. 그리고 혁명적 정치조직의 복원과 지역사회운동노조를 통한 중소, 영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적극적 조직화, 단위 사업장 내에서의 현장 조직 재구성을 통한 사측과 정권의 탄압에 대응, 기회주의 세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여 조합원 대중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사내 비정규직 노동운동과 연계해 나아가야 한다.

거대하지만 작동되지 않는 조직에 안주하면서 붕괴를 맞이할 것인가?

작지만 노동해방 대의에 충실하고 아래를 향한 연대를 통해 세계경제위기에 정면으로 대응해 나가는 조직을 꾸릴 것인가. 우리의 선택만이 남았다. 일보후퇴를 통한 이보전진을 위하여 단안을 내리자

여기 이사람!

“소위 좌파서적을 읽으면 국민이 아닌가?”

민간인사찰 피해자 김종익씨

“개인이 겪은 끔찍한 일, 국가가 사과해야”



▷ [노동자역사 한내]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데,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헌법재판소, 국무총리실 사찰 행위자들에 대한 1심) 결과와 내용, 앞으로 진행할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결과 등과 연계하여 미래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다. 지금은 뭐라 딱히 말할 형편이 아닌 것 같다.

▷ 실본문서 번역 등을 하고 계시고 조예도 깊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

▶ 어린 시절 한문서당을 하시던 외할아버지께 한문을 사숙했다. 외할아버지는 외동딸인 어머니를 일제 시대에 고녀(여고)를 보내실 정도로 근대교육에 관심이 높은 분이셨다. 이런 외할아버지로부터 중학교 시절까지 사서를 배웠다. 아마 우리 세대는 한문을 전통적 방식인 서당을 통해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인연이 동학농민전쟁 10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였던 매천 황현(梅泉 黃玹, 1859~1910) 선생의 오하기문(梧下記聞)을 한글로 번역하게 되었다. 오하기문은 농민전쟁 당시 구례에서 살고 있었던 매천이 당시의 실상을 일기 형식으로 쓴 기록이다. 선생은 왕도정치를 사회의 이상으로 여기는 유학자로 농민군을 '동도(東盜)' 라고 표현했지만 농민전쟁이 발발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당시의 세태를 엄정하게 기록하고 있다. 특히 탐관오리에 대한 비판은 가슴이 서늘할 정도의 비판을 가하고 있다.

나이가 들면서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의 고전들이 가지고 있는 인문 세계가 주는 깊고 그윽함에 자주 마음이 가고, 이 분야의 연구는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기에 번역본이 아닌 원서로 읽고 싶은 욕심에 일본어를 공부했다. 요즘은 수유+너머에서 일본잡지읽기 세미나를 하고 있다.

▷ 쇼 며칠간 인터넷 유튜브에 선생님 관련한 '삭질적' 비빔 동영상 시리즈가 퍼지고 있다. PD수첩에 나왔던 인터넷 배경화면(책장)에 꽂혀있는 시튼 바 좌익서적을 두고 그려는 것 같은데, 원래 빨갱시다 뭐 시튼 식의 비빔이다....

▶ 우선 '좌익서적'이라는 용어는 성찰되지 않은 맹목적이고 공허한 용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좌익서적이란, 이런 용어가 횡행하는 사회가 얼마나 폭력적인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사실 이런 용어를 생산하여 유통시키는 쪽의 문제도 있지만 이런 용어를 아무런 성찰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쓰는 쪽의 문제도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사실 한국사회처럼 변화무쌍한 공동체에 살면서 자신이 발을 딛고 사는 사회에 대한 구조적·역사적 이해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좀 이상하게 생각한다. 사회에 대한 이상적 동경은 근대사회의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고, 이런 동경은 필연적으로 사회를 해석하는 다양한 시각을 가진 책을 읽으며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가꾸어지는 것이 아닐까. 한국사회에서 합법적으로 출판된 어떤 책들을 읽었다는 것을 가지고 무지막지한 폭력적 연사를 행하는 일은 미숙한 사회에서나 가능한 일이 아닐까 한다.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시대의 자화상이 슬프기 그지없다.

▷ 혹시 (동영상의 책 내용을 선급하며) 학생운동이나 사회운동 경험시 있으신지....

▶ 사실 PD수첩의 화면은, 우연히 사회과적 서적들이 꽂혀있는 서가를 배경으로 나를 촬영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사면이 서가로 이루어진 내 서재에는 오히려 소설, 동양고전, 미술, 언어, 수학, 역사에 관한 책들이 더 많다. 만약 PD수첩 화면에 소설책이 꽂혀있는 서가가 나갔으면 소설을 너무 읽어 현실감이 없는 몽상가라고 매도했을까.



운동? 나는 그냥 우리의 삶이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사는 사회를 균형감을 가지고 보고자 하는 노력, 그런 노력에 의해 자율적으로 규제되는 삶, 이런 것들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내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라는 미국 원자폭탄의 아버지 '오펜하이머'에 관한 책이 있다. 이 책에는 원자폭탄을 만든 과학자들이 "우리 과학자들은 모두 개새끼들이다"라고 자조하는 인상적인 구절이 있다. 이 책이 선사하는 많은 감동이 있지만, 이 말은 인간이 왜 고뇌해야 하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고뇌(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폭넓은 독서에 의한 균형감이라고 생각한다.

▷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아쉬운 점은?

▶ 나는 내가 겪은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국가가 국민을 대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건은 이미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찰행위자들이 구속되었지만, 정부에서는 사과 한 마디 하지 않고 있다.

국가권력의 폭력에 국민의 삶이 거덜이 났는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를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번 일을 겪으면서 내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이민가세요"라는 말이다. 나는 이 말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인가를 생각하며 몸서리를 친다. 사람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국민을 위한 국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권력집단의 도구라고 생각한다는 거다.

얼마 전 카터 전 미국대통령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곰즈 씨를 데리러 적국인 북한을 다녀갔다. 국가가 국민을 대하는 이런 풍경과는 달리 민간인 사찰 피해자인 나를 향해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대변인, 국회의원들은 마치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라는 것처럼 이념적 연사로 상처를 주었다. 아무리 정치적 이

해를 가진 행위라고 해도 이런 것은 너무 지나쳤다고 생각한다.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도 들었다. 만약 정부와 집권여당에서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내가 입은 피해를 어루만진다면 집권여당의 지지율은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다. 어쨌든 국가가 국민을 대하는 이런 초라한 현실에 상처를 입는 국민의 위무할 무엇인가가 필요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누군가가 진정한 정치인이 아닐까. 이런 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새기를 마치는 시간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번 사건 관련해서 국감출석 중신을 놓고 공방을 벌이던 시각이었다. 마침 김종식씨도 국감에 출석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있던 참이다. 필자는 국감에 가서 맘 단단히 먹으시란 새기 밖에 할 수 없었다. 한나라당이 '똥통'을 숨기기 위한 쟁점 흐리기 질의와 항상 그렇듯이 개인적 문제로 몰아가기 위한 매도성 발언과 질의가 지친 그를 더욱 지치게 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현재 시각처럼 시대로 흘러갈 경우 국민은 정말 불쌍해지고 더 비참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태 앞에 선제부터 수리가 이렇게 무력했던가! 국회 앞 집회는 이런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자괴감이 앞섰기 때문이다. 끝.

해외소식

우리를 만들어낸 역사적 순간

1789 1848 1871 1905 1917 1968 20??

세계적 혁명인가 자본의 재구성인가?

I 자본주의 시대 노동계급에서 일어난 분산과 재편성

혁명적 노동계급에 의한 자본주의에 대한 최초의 전 세계적인 공습은 독일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1917-1921년에 일어났다. 그 공습은 궤멸되었고 역공이 그 뒤를 이었다. 그 공격은 과도기적으로 파시즘의 형태를 띠었고 좀

더 지속적으로는 사민주의적 복지 국가주의, 스탈리니즘 그리고 제3세계 국가 발전의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그 진정한 내용과 성격에 대한 기억을 묻어 버릴 만큼 거의 성공적이었다. 1968-1977년은 혁명의 귀환과 최소한 부분적인 회복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여기서의 회복은 자본주의 헤게모니의 더욱 심화된 발전 속에서의 회복, 초

기 패배로 인해 부재 상태에 빠졌던 공산주의 설계의 회복을 의미한다. IN의 임무는 그 회복을 더욱 심화시키고 다음에 일어날 (마지막이길 바라는) 세계적인 공습을 위한 이론적 실질적 재편에 참여하는 것이다.

2008년 터져 나온 세계 위기(그 자체로 단지 "느린 추락 착륙"의 마지막 뒤틀림- 1970년 시작된 위기보다 때로 더 빠르고 때로는 더 느린)의 마지막 국면이라는 관점에서 성찰해 볼 때, 그리고 오늘날 간헐적으로 모양새를 취해가고 있는 노동계급의 그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부터 성찰해 볼 때, 우리는 1970년대 후반 이래로 전 세계에 퍼져있는 대부분의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삶의 비틀거리는 진부함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아무 것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단지 사민주의적 복지국가의 폐기, 소비에트 블록의 붕괴와 독일 재통합,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구역으로 부상한 아시아 혹은 급진적 이슬람의 출현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1960년대와 1970년대 초기 대중 투쟁을 겪으며 살았던 우리에게, 2008년 10월의 붕괴에 앞선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35년간의 하강은 확실히 1840년대 공산주의 운동이 처음 출현했던 이후 가장 길고도 낮은 역사적 시기들 중 하나인 것 같다. 우리들 가운데 거리에서 펼쳐진, 선진 자본주의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반복된 대중운동의 시기를, 너무 어려서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Washington Consensus," 신자유주의, 국제화, "근대 후기" 혹은 "역사의 종말"로 잇따라 특징 지워진 한 시대의 비현실성을 이해하기 위해 훨씬 더 크게 상상의 나라를 펼쳐야만 한다.

파리코뮌(1871)에서 1905년 러시아 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기간에 맞먹는 비례적인 투쟁의 퇴조를 떠올릴 수도 있다. 그러나 심지어 그 당시에도 유럽 전역에서 벌어진 조직적 노동계급 운동은 노동조합에서든 대중적 노동자 정당에서든 점진적으로 팽창했었고, 그 결과 1900년까지 심지어 상당한 정도의 "수정주의"라는 사상

적 난잡함을 양산하기도 했다.

그건 그 때고- 여전히 세계적 차원의 자본주의 상승 국면- 지금은 지금이다.

대조적으로, 1970년대 중반 이후는 거의 연속적인 패배의 기간이다: 라틴아메리카 남부 원뿔지역(칠레, 아르헨티나, 우르과이, 브라질)의 무자비한 독재; 1980-81년 급증하는 폴란드 노동자 탄압과 포용, 인종차별정책에서 긴축정책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남아프리카 노동자 운동의 급진적 흐름에 대한 봉쇄, 이란 혁명 노동자위원회 패배, 프랑스 제철의 감량 경영(1979)에서 이탈리아의 FIAT(1980)를 거쳐 영국 광산노동자 파업(1984-85)에 이르기까지 자본주의 심장부에서 일어난 구식 단일산업 투쟁의 연이은 패배.

미국은 노동조합 투쟁의 기나긴 연속적 실패를 목격했다: 이 패배는 PATCO (1981)에서 Greyhound (1983) 로, Phelps-Dodge Copper (1984) 와 P-9 (1986)에서 Jay, Maine paper 파업(1987-88)에 달했다. 이 국면의 끝에 Wal-Mart 는 최대 고용주였던 General Motors의 자리를 대체했다. 심지어 노동자들이 전통적인 형태를 벗어나 대항했을 때조차, 그들은 패배했다.

■ 브라질 노동자들은 1970년대 후반 몇몇 인상적인 파업을 벌였지만 당시 룰라와 노동당에 의해 유권자라는 속박에 갇히게 되었으며 결국 크게 축소되고 말았다; 철강과 자동차산업은 70년대 후반 가장 중요한 고용주였으나 10년 후 맥도널드와 보안업체가 그들을 대체했다.

■ 만성적 실업에 시달리던 알제리 청년들이 1988년 폭동을 일으켰지만 이슬람운동으로 견인되었고 그 이후의 시민전쟁으로 분쇄되고 말았다.

■ 석유노동자들과 다른 노동자들이 이란혁명(1978-81) 동안 노동자위원회를 설립했으나 그 혁명을 진압하는 것이, shah(이란국왕의 존칭)의 전복을 강탈한 이슬람 공화국의 우선과제였다.

■ 1987년 남한 노동계급이 분출해 90년대 초반까지 성과를 얻었으나 그 후 살라미전술(달갑지 않은 분자를 제거하는 정책)과 1997-98년 IMF위기의 쓰나미를 맞아 역공을 받았다.

■ 남아프리카 민중은 인종차별정책의 철폐를 강제했으나 결국 ANC는 이들을 신자유주의에 넘겨버렸다.

■ 2001-2002년 일어난 아르헨티나 piqueteros 운동은 정부를 굴복시켰으나 그 이상은 하지 않았고 페론주의(Juan Peron의 주의 또는 정책)의 재생으로 흩어지고 흡수되었다.

여기에 연속적으로 일어난 지역 전쟁을 더해보자. 레바논 (1975-1990)에서 1990년대 초기까지 40개 남짓의 전쟁이 진행 중이었고, 1994-1998년에는 전쟁이 최고조에 달해 거의 아프리카 전 대륙에서 4백만 명의 죽음을 몰고 왔으며, 미국은 이라크에서 큰 낭패를 보았고 아프가니스탄과 아마 파키스탄에서도 낭패를 볼 잠재성이 있다. 구유고슬라비아와 구소련연방의 주변부에서 나타난 살인적 국가주의의 확산은 1차 세계대전의 종말을 강제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가 사실상 아주 먼 얘기인 듯 보이게 했다.

II 유일한 실질적 전제인 전 세계적 임노동력

우리가 이토록 암울한 역행의 시기에 희망을 품고 등장한 만큼 우리는 1919년 살해되기 직전 로자록셈부르크가 했던 말을 상기해본다: "혁명은 말한다: 나는 존재했고 존재하고 존재할 것이다!" 우리는 공산주의가, 마스가 공산주의 선언에서 언급했다시피 "우리들 눈 앞에서 발전하고 있는 실질적 움직임"이 현실 속에서 진행 중이라고 단언한다.

헤겔의 "knight of history (역사의 기사)"에서처럼,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어떤 급박함 속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다음번 공세의 분명한 칼날로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전제에 두고 있다.

이 "전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 접근으로서, 그

것은 전통적인 "블루칼라" 프롤레타리아(다소 축소되긴 했으나 여전히 중심에 있는)로 분산되어 있는 임노동 부대, 분산되고 임시화된 서브프롤레타리아 그리고 그 부대와 동맹이 가능한 기술 과학 지식 문화층의 프롤레타리아 요소들을 "독자적 계급 - 세상을 접수할 준비가 되어 있고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재조직하는"으로 통일할 수 있는 전 세계적인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이들은, "전도된" 형태로, 사실상 막스가 "총노동자"(Gesamtarbeiter)라고 불렀던 것을 포함하는 부대이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난 40년간 빚으로 움직여온 사회적 후퇴로 인해, 이 "총노동자"는 키메라(환상)인 듯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 축적의 흩어진 걸모습("정체성 정책"으로 이론화되고 찬미된 바로 그 파편들) 하에 이들은 세상의 "사용 가치" 일을 매 일 하고 있다. 이들 노동력은 현재 야만과 지구파괴를 향해 더욱 광적으로 달려가고 있는 자본축적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하는 강령의 재통합은 "유토피아"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 시대의 실질적 유토피아인 인도적 형태와는 관계가 적은 이 낡은 사회 체제의 존속이야말로 유토피아적이다.

우리 IN이 헌신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노동력의 강령적이고 실질적인 재통합이다.

III 역사적으로 지배적 세력인 노동계급의 분산과 재편성

앞서 서술한 명백히 뻣뻣한 문체가 어떤 이들에게는 불분명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례로 그 보따리를 풀어보겠다.

1968-1977년 세계적 차원에서 일어난 프롤레타리아 마지막 총 공세의 특징은 공장조립라인에 저항한 반란이라는 점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움직임은 "대안적 사회 과제"를 명료하게 하고 이행하는 데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들은 어떤 이들에게는 비교적 명료해보였다. 앞 선 위대한 혁명(러시아 1917년, 독일 1918, 스페인 1936, 헝가리 1956)의 노동자위원회 그리고 다른 형태의 민중회의 혹은 덜 총체적인 민중투쟁 현상(1974~

75년 포르투갈 혹은 1950년대에서 1973년까지 유럽과 미국에서 일어난 흑인 주도의 파업운동을 다시 고려해 볼 때, 그 운동의 목표는 기존의 산업공장을 접수해 "노동자 통제" 하에 두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1945년 이후 자본주의 "성장"이 이미 빛나간 특성을 보였던 점을 고려하면 우리는 단지 자동차의 산업연계성이 지니는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 그러한 시각은 이미 결함이 있었지만 최소한 많은 노동자들에게 명백한 듯 보였고 당시 가장 진보적 투쟁(유럽과 북미에서 일반화된 파업투쟁)을 위한 중심을 제공했다는 공로를 지니고 있었다.

"국제 노동자위원회에 있던 모든 권력"은 그 시대에는 겉보기에 가장 "보편적인 실재"였다. 그리고 그 권력의 실현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듯 보였던 덧없는 순간들이 있었다.

자본가들의 역공은 "일반화된 자가 경영"을 향한 "눈에 보이는" 차원의 움직임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수반했다: 대공장을 소규모 산업으로 해체해 시골 "초원"에 고립시켰고 더 나아가 노동자들을 탈도시화하기 위해 외곽지역으로 분산시키고, 노동을 임시직으로 바꾸고, 제3 세계에서 외주 제작을 하고, 생산에 강화된 "하이테크"를 도입했다. 1968-1977년 반란을 일으킨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이런 방식의 탈사회화는 깊고 철저했다. 이 방식은 자본가들 역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기술(이런 경우 무엇보다도 새로운 텔레코뮤니케이션과 향상된 운송수단) 분야에서 교과서적으로 사용되었다; 자동차 대량생산 이후 뿐 아니라, 혁신은 프롤레타리아라는 보편적 계급을 고립시키고 분산시키는 발단이 된다. 우리가 그러한 텔레코뮤니케이션과 운송수단이 내일엔 우리의 실질적인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이는 후에 살펴 볼 것이다.

우리의 신중한 낙관론은 단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강화된다. 앞 선 수십 년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부르주와 자본주의 사회를 철폐하려던 움직임의 패배-부활 사이클은 새로울 것이 없다. 노동운동은 패배로부터 배

우고 재구성하며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 속박에 대응해 오기를 반복해왔다. Enrages와 프랑스 혁명의 Babouvist Conspiracy of Equals에서 1848년까지, 바로 그 초기의 움직임은 음모적 반란주의(putschism-Blanqui)와 1848년 파리 6월 공산주의에 대한 최초의 구체적이고 보강된 표현 속에 등장한 다양한 유토피아적 계획(Owen, Fourier)을 버려야만 했다. 그 1840년대의 고조(upsurge)로부터, 막스 엥겔스의 작업과 실질적인 활동 속 운동에 성숙한 자의식이 도출되었다. 1848년대의 패배를 따른 긴 봄이 다양한 경향을 지닌 제1차 인터네셔널을 양산하고 파리고문에서 절정에 이른, 미국 노동해방에서 유럽파업의 물결로 이어지는, 1860년대 투쟁의 상승을 낳았다.

고문이 붕괴하고 1차 인터네셔널이 해산되자 자본주의 발전의 칼날과 성숙한 노동자 운동은 독일로 방향을 바꾸었다. 사민주의적 개혁주의(노동조합과 국회활동)의 기나긴 환영이, 막스의 실질적 운동에 관한 이론을 후진국의 산업적 발전을 위한 이데올로기로 순화시키려는 움직임과 함께, 독일을 시작으로 러시아에서 더욱 치명적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소위 "사민주의의 세기"와 사민주의의 사생아인 스탈린주의(1875-1975) 즉 국가사회주의의 치명적 환영은 시작되었다. 막스와 엥겔스는 초기부터 "사민주의"라는 용어를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공산주의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절충적 잡동사니라고 비난했었다(Critique of the Gotha Program, private correspondence). 그러나 2차 인터네셔널(1889-1914)의 특징이 되 버린 잿빛 탁월함은, 서구유럽의 길로만 가혹해 보이는 선거를 통한 진보와 노동조합 진보 하에 막스 엥겔스의 이러한 비평을 조용히 물어버렸다. 사회주의/공산주의가 국영재산을 계획하는 국가를 뜻한다는 그릇된 사고가, 세상을 이전의/확장된 자본의 지배에서 실질적/강화된 자본의 지배로 변이시키려는 현실(1870s-1940s)을 은폐했다. 이러한 변이는 이미 막스의 또 다른 미지의 작품 (1932년까지), 일명 출판되지 않은 자본론 제1권 6장 속에 완벽하게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기존의 조건을 폐지하는 현실 운동" 이 1905-1906년 러시아-폴란드 대중투쟁 속에 나타난 자기만족적 지루한 사민주의의 세계를 찢어버렸다. 빠리꼬뮈이 국가 폐지를 위한 실질적인 암중모색하던 것과 때를 같이 해, 1905년에 터져 나온 투쟁은 2차 인터네셔널의 국회점진주의, 노동조합주의와 생산계획주의에 대항해 노동계급의 훨씬 더 진보된 형태로 소비에트와 노동자위원회를 역사적 의제로 자리매김했다. 소비에트와 노동자위원회는 그 결과 1917-1921년 세계 반란의 파도 가운데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다. 독일과 러시아를 주축으로 시작된 당시의 반란은 결과적으로 30개국에 전파되었다가 패퇴된다. 1905-1921년 사이의 여파로 Luxemburg, Bordiga, Gorter and Pannekoek과 같은 차세대 혁명이론가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는 당시 활동 중이던 노동계급의 실질적인 발견에 대한 자각적 표현이었다.

1917-1921년 혁명의 물결은 그러나 "사민주의의 세기"와 생산주의의 하향식 계획입안 방식을 끝낼 수 있을 정도로 깊이가 있지는 못 했다 ; 오히려 후자를 자본주의의 안정화에 더욱 적합하도록 만들었다. 자본주의는 노동계급의 새로운 시신 더미를 넘어, 이전까지 알려져 있지 않았거나 어렵듯이 윤곽만 드러났었던 국가주의, 불황이 10년과 처음으로 "재구성(1914년 이전 시기의 실질적 개혁주의와는 대조적으로)"을 이룬 2차 세계대전을 통해 그 균형을 회복했다; 이 재구성은 1914년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미 상품생산을 폐지하는 데 필수적인 전 지구적인 생산력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완전히 뒤엎어 버렸다. 이 재구성의 일부에 반식민지 상태이거나 새롭게 의존적이게 된 과거 식민지 사회에서의 강화된 자본축적이 포함되는데 이 시기에 프랑스 제국뿐만 아니라 패권국 대영제국 또한 미국에 그 패권을 넘겨주게 되었다.

IV. 자본주의 쇠퇴 동안 벌어진 재구성과 반란

2차 세계대전 후 오랜 팽창은, 자칭 진보적이라는 겉치장을 한 다양한 국가주의의 후원 하에, "공산주의

유령"을 광범위하게 ?아낸 듯 보였는데 이는 특히 세계 1/3 인구를 통치하던 전체주의 국가들이 공산주의의 장식들 뿐 아니라 단어 자체를 접수해버렸기 때문이었다.

생산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은 그러나 달리 인식하고 있었고 양진영 모두에서 새로운 형태의 투쟁을 재조직하고 새로운 투쟁 방식을 발견했는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1950년대 이후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탄력을 받으며 성장한 불법파업이었다. 1956년 폴란드 노동자들이 스탈린주의 국가에서 대대적인 개혁을 감행하게 했고 몇 달 후 헝가리에서는 눈에 보이는 레닌주의 전위당이 없는 상태에서 프롤레타리아들이 며칠 만에 국가적 체계를 갖춘 노동자위원회를 구성해 정권을 전복시켰다. 1968년 프랑스에서 노동자들은 역사상 가장 긴 총파업을 단행했다. 1950년대 이후 노동자 운동 가운데 이 파업의 순간은 1970년까지 많은 장소에서 법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을지 몰라도 사실상 생산현장에 대한 통제를 자본가들로부터 빼앗았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자본주의를 뛰어 넘는 사회적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정교화해내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았고 1970년대 중반까지 힘을 모으기 시작한 자본가들의 역공에 굴복하고 말았다. 그 역공은 영국의 대처, 미국의 레이건, 프랑스의 미테랑 그리고 중국의 덩샤오핑 등의 연이은 승리에 의해 강화되었고 1985년 러시아의 고르바초프가 이에 가세했다.

1914년 이전 시대 이래로 어떤 이데올로기도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어 1) 1920년대 이래로 가장 큰 빈부의 격차 2) 앞 선 국가주의 시대 대부분의 사회적 안전장치의 파편화를 배후에서 조종하고 3) 새로운 원거리통신과 운송 기술을 사용해 서구에서 불법투쟁을 가능하게 했

던 노동자들의 집중을 분해하고자 세계적으로 생산을 분산시켰던 적이 없다.

1914년 이래로 모든 역사는 자본주의의 사회적 관계가 노후했다는 현실을 연장하기 위한 연이은 (그리고 지금 까지 성공적인) 시도들을 수반해왔다. 이는 주기적으로 파괴 억제 그리고 이데올로기를 통해 이루어졌고 노동자들과 그들의 투쟁을 그러한 자본의 사회관계에 복속 시켜왔는데, 사회적 인적 비용이 얼마나 들든 상관없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1815-1914년과는 대조적인 이러한 자본의 회복은 재구성을 수반했는데, 이는 자본의 지배를 받지 않던 이전 시기에는 알려지지 않은 방식이었던 노동자와 공장의 대량 파괴를 통해 자본을 회복했던 것과 똑 같은 방식에서 이루어졌다. 자본론에서 마스가 분석했던 10년 주기의 위기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단순한 붕괴, 디플레이션 그리고 "자동" 회복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았다. 재구성은, 1914년 이전 실행되었던 것과 같은 실질적인 개혁주의와는 대조적으로, "전체적인 조직 개편" 포괄적인상황 하에서 사회적 총 임금비용을 낮추는 것을 의미 한다: 포괄적인 상황에는 노동계급을 훈육하는 노동조합과 사회주의자 정당, 노동자- 관리자 협력방안 혹은 현재에 더 가깝게는 다양한 상담가들, NGO, 여성 CEO 그리고 녹색 자본주의가 포함된다.

새로운 후기 1914년 기간("데카당스-쇠퇴" "제국주의의 쇠퇴 시기" "자본의 실질적 통치"라 불리기도 하는)의 특징은, 이전 시기와는 대조적으로, 자본이 팽창하고 사회적 재생산이 수축한다는 점이다. 전후 붐(1945-1970)과 같은 회복은 그러한 재구성을 수반했는데 이 재구성을 가능케한 것은 초기 대량 파괴(두 번의 세계대전, 불황의 10년, 파시즘 그리고 스탈리니즘) 세계 체계의 재편성(영구 프랑스 제국의 종말, 마샬 플랜 하에 이루어진 세계 경제 - 소비에트 블럭과 중국을 뺀- 의 "달러 블럭"으로의 변환, IMF and World Bank, 그리고 이전에 대체된 국가시

장에 의해 억제되어왔던 20-30대의 신기술(주로 자동차나 가전제품과 같은 내구성 소비재)에 근거한 새로운 "가치 기준"의 강제 등이다. 이러한 재구성은 경미한 1966년 경기후퇴 (일본, 독일, 미국), 1968년 달러 위기와 브레튼 우드 체계의 재정적 붕괴(1971-73)와 함께 동력을 다 소모해버렸다. 문제들이 풀려나가던 후기를 전후로 수십년간 가장 치열한 계급투쟁이 벌어진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

V. 자본, 파괴를 통한 새로운 균형을 구하다, 1970-현재까지: 느린 동체 착륙

그 때 이후, 자본은 새로운 "가치 기준"에 기반을 둔 또 다른 성공적인 재구성을 모색해왔다. 세계적인 차원에서 그것이 사회적인 재생산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말이다. 그러한 결과들은 충분히 파괴적이었고 그들은 결코 완주하지 못 했다

40년간, 지적인 바와 같이, 자본은 팽창하고 사회적 재생산은 세계적으로 축소한다. 연대기를 좀 더 가까워서 살펴보자.

1970-73년은 "느린 동체 착륙"이 시작된 시기이고 이는 Penn 중앙철도의 부도, 미국 경기후퇴, 자신이 케인스학파라는 닉슨의 뒤늦은 발견과 고정환율제인 브레튼우드 체제에 대한 1971년 8월 그의 일방적인 해체 결정에 의해 알려졌다. 무엇보다도 피라미드처럼 쌓여가는 부채를 통해, 자본은 주로 북아메리카, 서부유럽과 동아시아에서 "정상"인 상태를 유지해왔다 : 73-75, 80-82, 90-91, 2001-2년의 "정상적" 경기후퇴와 2007년에 시작된 현재의 경기후퇴. 그러나 사회적 재생산 측면에서 볼 때, 1960년대 후기 자본의 역사는 1914-1945년 획득한 재구성을 다시 한 번 노린 3차 세계대전의 대역에 맞먹는다. 중요한 것만 간추려보면, 미국의 경우 실질적 생활수준이 20-30% 하락했다는 점, 일인 소득 가정이 맞벌이나 삼인 소득 가정으로 대체되었다는 점, 전 지역에서 탈산업화가 이루어진 점을 들 수 있다; 서유럽의 경우 전반적으로

실업률이 평균 8-10%에 달했고 일반적인(아직은 미완의) 사회 복지가 제거되었다; 동유럽과 러시아에서, 여피족의 주거지를 둘러싼 노동자들에 대한 판매 퇴조는 천연 자원에 대한 토지임차에 기초한 것(러시아에서)이지 실질적인 생산과는 어떤 관련도 없고, 동유럽의 경우 서구 투기자본이 부동산에 유입된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비산유국, 구소련 중앙아시아국가, 인도 그리고 non-Tiger 아시아를 고려해 볼 때, 우리는 질병과 전반적 빈민생활로 성장을 멈추고 죽어 간 수십억에 대해 이야기하게 된다. 당대의 멕시코는 "차세대 한국"(월스트리트저널, 약 1990년)에서 차세대 아프가니스탄(파이낸셜타임즈, 2010 3월)이 될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되었다.

중국 연안으로 확대된 동아시아만이 현재 부분적인 예외로 두드러지고, 심지어 그들 중 한국 대만 인도네시아조차 1997-98년 끔찍한 경기후퇴를 경험했으며 중국의 1978년 후기 성장은 그 결과물로 약 8억5천만 명의 농부를 남겼고 부유하던 실업부대 1억명이 봄때문에 떠나갔다.

유사하게 칭송되고 있는 "빛나는 인도"는 큰 규모의 농촌빈곤, 파산한 직조공들의 유형성 자살, 델리의 산업지역 내 노동 분규, 1970년대 대규모 경기후퇴를 따라 거의 소멸했다고 발표된 마오주의 낙살라이트(인도에서 토지 개혁을 주장하는 집단의 일원) 게릴라운동의 부활에 의해 그 실상이 노출되어왔다.

"부상하는 거인" 중국과 인도에서 이미 소수의 현상이 되어버린 아시아의 성장은 세계적인 경기후퇴로 인해 상쇄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버렸다. 국가시장에 의해 억제되어왔던 20-30대의 그러나 누구도 지난 35년간 임노동 프롤레타리아의 변화된 조건들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없이 1917-1921년이나 1968-1977년에 견줄 만한 그리고 그를 뛰어 넘는 자본주의에 대한 전 세계적인 새로운 공습을 생각할 수는 없다. 현재의 노동환경은 1968년 디트

로이트나 영국 레이랜드 혹은 Renault-Billancourt (파리)의 조립라인 노동자들과 다르며 후자는 1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도 달랐기 때문이다.

VI 프롤레타리아 집중에 대한 자본의 공격

막스는 자본론1권 "기계와 근대 산업" 편에서 아름다운 문장들로 기술의 역사는 노동시간의 길이와 조건을 둘러싼 자본과 노동의 끝없는 투쟁이라는 관점에서 쓰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우리는 또한 자본이 1970년대 후반 이래로 60-70년대 노동자 반란에 대한 역공으로 행해온 모든 것을 이해해야만 한다. 그 문제들 중 하나는 세계 임노동 조건을 통일하기 위한 새로운 보편적 전제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는 1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소비에트와 노동자위원회를 실질적으로 발견해냈던 것 그리고 1968년 후 10년 간 이를 다시 "회복"했던 것과 유사하다. 또 하나는 오늘날 세계 생산과 재생산에 나타나는, Grundrisse에서 막스가 묘사했던 것을 시사하는 "역전된" 형태를 "내재적으로" 찾아내는 것이다:

... 부의 일반적 형태를 향한 자본의 끊임없는 노력은 노동이 지닌 자연적인 한계를 넘어서도록 몰아가고 소비에서 만큼이나 생산에서도 전천후인 부유한 개체를 위한 물질적 요소를 창조하며 또한 그로 인해 그들의 노동은 더 이상 노동이 아닌 활동성 그 자체의 완전한 발전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활동 그 자체의 완전한 발전" 향한 1968-1977년 수색 가운데 미완의 출현으로 놀란 자본은, 축적을 위한 이전 조건이 붕괴되자 세계 노동계급에 대한 엄청난 규모의 2차 재구성으로 맞대응했다. 이를 위해 미국과 유럽의 밀집 도시지역에 있었던 대공장과 고도로 집중되어 있던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해체되고 분산되었다. 2차 재구성은 통신과 운송에 나타난 신기술과 혁신을 통해 생산을 생산을 강화했다. 자본의 투쟁은 과거

그래왔듯이 인적 노동을 가능한 많이 생산으로부터 제거하는 반면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에 이미 이런 높은 수준의 생산성을 고려해 볼 때, 그것은 물질적 재생산에 필수적인 인적 노동이 세계적으로 이미 총인구 대비 "과잉" 상태였고 그러나 지배적인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본의 가치 확대를 지속하기 위해 반드시 필수적이라는 현실에 반하는, 한결같은 당혹스런 자본의 투쟁이었다. 미국 감옥 체제 속에 있는 7백만 명(재판을 기다리거나 감옥에 있거나 가석방 상태인, 총 3억 인구의 2%)만 보아도 자본이 과잉 인구를 창고에 보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3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회에서 소외된 20억 인구는 말할 것도 없다.

우리는 1980년대와 1990년대의 "하이테크" "신경제" 영광을 따른 그러한 기술은, 설사 기존의 기술이 분명 자본주의의 사회적 관계의 물질화라 할지라도 자본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날 훨씬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다.

VII 1848년 공산주의 분출 그리고 그 이후, 자본 자신을 폐지하려는 유령에 저항한 자본의 투쟁

유럽 노동계급의 실질적인 운동인 공산주의가 1848년 나타나자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는, 과거 모든 계급 형성과는 대조적으로, 사회가 할 수 있는 것들, 즉 임노동, 상품 생산, 자본의 폐지 그리고 이와 함께 임노동 프롤레타리아를 시작으로 한 사회적 계급의 폐지를 점점 더 신비화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종국에 자본 이데올로기는 자신의 계급적 정치 경제, 합리적 문명에 대한 신봉 그리고 "제 3 계급(평민)"의 권리에 대한 추종을 모두 버렸다. 이제 제 4 계급 프롤레타리아와 대치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셰익스피어에서 고야를 거쳐 발작에 이르는 창조적인 사회현실주의 작가들을 버렸고, 자신의 해방을 위한 무기 즉 자신의 위대한 철학 G.W.F. 헤겔의 유산이 1840년대 급진적 동요 속으로 양도되어 칼 막스로 이끌어지면서 바로 그 무기가 자신을 향했음을 보며 두려움에 움츠렸다.

자본은 Tudor(튜더 왕족 1485~1603) 영국에서 프랑스 혁명을 거쳐 1840년대 다양한 국가(예를 들면 스페인)들에서 공격적으로 수도원을 폐쇄하고 막대한 교회 토지를 징발한 반면, 자본주의 이념가들은 종교 부흥과 새로운 비합리주의와 바람을 피우는 식으로 "공산주의 유령"에 대응했다 (과거 30년의 종교 부흥과 새로운 비합리주의에 비하면 사실상 부드러운 편이긴 하다).

그러한 속임수와 진정한 인간성의 실현을 자본주의적 관계로 강제로 되돌리려는 광적인 이데올로기적 전도는 이미 1945-1970년 전후 붐 동안 막대한 부분을 성취했으며 아마도 미학, 이론, "하이 근대주의(지적, 예술적 시대를 가리키는 용어와 유사한 뜻을 나타내는 근대주의의 종국을 나타내기 위한 신조어)" 등에 가장 구체화되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동서남북을 막론한 "문명화된 계획자"의 시대였다. 이는 Robert Moses의 뉴욕으로, 구소련의 "과학 도시"로, 외국의 흰 코끼리 원조로 추진된 거대하고 거의 사용되지 않은 제철공장과 Nasser(1950-70년 이집트 대통령) and Nehru(1947-64년 인도 수상) 정권 하의 제 3세계 발전 어디에도 닿지 않는 고속도로 건설로, 혹은 브라질리아를 기술자가 지배하는 도시(파리 교외에 있는 그의 유사하게 섬뜩한 프랑스 공산당 본부 같은)로 만들고자 했던 Oskar Niemeyer(오스카 니마이어, 브라질 건축가)의 꿈에 대한 섬뜩한 침묵으로 나타났다.

자본은 1차 세계대전 직후 망각의 고비로부터 회복했고, 세계적인 자본축적을 위해 필수적이었던 1945년까지의 기나긴 수십 년의 위기를 사회적 계획 입안 전문가들의 가짜 이성으로 극복했다: 영국 노동당의 얼굴 없는 잿빛 관료주의자들과 복지 상태, 프랑스 "trente glorieuses(2차 세계 대전 이후 프랑스의 30년을 일컫는 말로 영광의 30년이라고도 함)" 에서 보여 지는 교만한 기술자 지배 사상의 추종자들(테크노크라트), 소비에트 5개년 계획과 "굴라시 공산주의(소비 물자를 증산해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려는 정책을 강조)"의 유망함을 내세운 스탈린주의 관료주 의자들, "지적 방위체제"와 Robert McNamara

(오늘날 정책분석이라 알려진 분석체계 제도를 담당했던 케네디 대통령 시절 8대 국무장관이자 세계은행 총재를 역임한 인물)의 미국 군대 세계 확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뇌사상태의 논리적 실증주의 철학에서 시작해 신고전 "경제학"에서 펼쳐진 수학적 맹공격을 거쳐 근대 문학, 예술, 건축 그리고 음악에 대한 내핍을 주장한 인색한 형식주의자들에 이르기까지 가짜 이성이 승리한 시대였다. 이들은 1차 세계대전 후 수년 간 근대주의의 어떤 흐름을 생기 있게 하거나 그렇게 한다고 여겨지는 급진적인 사회적 관점을 조심스럽게 지워갔다. 이러한 축하 분위기 속에서 단지 소수만이, 1848년 이래로, 유일한 실제 이성은 혁명적인 노동계급의 자 각적인 세계 실천 뿐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노동계급이 1950년 이후 불법 파업 운동을 통해 재조직을 시작한 동안, 지배적 이데올로기는 계속해서 생산 기술 주도적 근대주의의 밝은 미래를 떠벌렸으며 이는 1968년 파리의 한 서정 시인이 벽에 쓴 것처럼 "포장용 자갈돌 밑으로" 숨겨진 "해변가"의 잠재력이 숨어 있는 훌륭한 진지였다.

그러면 1968-1977년 노동자 반란을 가까스로 억누른 후 자본주의가 노후했다는 사실을 모호하게 해야만 했던 자본의 임무에 대해 뭐라 말해야 할까? 1848년 이래로, 그러나 특히 1917년 이래로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의 모든 문구는 패퇴된 혁명적 파도로부터 빌린 파편들로 스스로를 치장해야만 했다. 루이스 나폴레옹이 노동자 조직을 조장했고 심지어는 1차 인터네셔널의 초기 회의에 프랑스로 대표단을 파견했던 사실을 떠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내전 파시즘은 자신이 부순 노동자 운동의 의복과 대중 선전 방법을 빌리는 데 달인이었다. 2차 세계대전 후 30년의 특징은 그러므로 복지 국가주의, 스탈린주의에서든 혹은 제 3 세계 발전이라는 외관을 띄고 있든 1875년 마스가 비판한 바 있는 사민주의 고타강령의 실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970년 대 후반 이래로 자본주의 역공은 우리에게 가장 근접한 공격이므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이 모든 사회적 문화적 현상, 즉 교외와 준교외로의 도시해체, 소규모와 "주변도시"의 확산, 전후 붐 동안 중산계급에게 버림받았던 도심지역의 "재정복" (도심지역은 세계적으로 고급화시키고 빈곤층은 저급한 도시외곽지역으로 몰아내는 형식으로, 공공연하게 단결하여 "교육"을 접수하는 방식으로)에서부터, 훨씬 강력해진 사유화와 개별적 기술에 의한 사람들의 원자화 그리고 그들이 "의사소통"하는 광대한 잡학의 바다에 이르는 모든 현상들은 반드시, 지금 현재는 역전된 상태에 있는 잠재적 인재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후기 근대" 현상은, 북아메리카 유럽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성장"으로 떠벌려지고 있으나, 마이크 데이비스의 문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빈민 행성"과 공존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지난 30년에 대해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은 자본이 스스로 1960년대의 패배되고 편입된 공허한 이데올로기의 많은 부분을 어떻게 차용 했는가 이다. 소외된 중산계급의 저항이 축적의 다음 단계를 개척하도록 도왔던 것은 처음이 아니다.

1930년대, 신생 복지 국가의 공무원 자리를 차지했던 것이 바로 정확하게 이 계급이었다. 1970년대 후반 후, "선진" 자본주의 부문의 부유한 계급을 위한 개인용 컴퓨터가, 이전 시기 자동차가 그랬던 것처럼 이러한 축적 국면의 상징이라고 말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컴퓨터는, 자동차가 그랬듯이, 기술 그 이상이며, 자유라는 일반적 이데올로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그 이데올로기는 "거대함" "관료정치" "계급제"에 대한 저항이자 "조직 인간"과 "재빛 프란넬 정장"에 맞선 "혁명"이었으며 한 때 60년대 신좌파들의 교전 중 외침이었다. 이전 운동이 정치적으로든 보헤미안/반문화적 형태에서든, 당시 지배적이던 "청교도주의"에 대해 쾌락적 소비를 대치시켰다면, 이제 자본가 계급과 그 추종자들은 월스트리트와 과 구르메(식도락가) 식당 그리고 최신유행 사도마조히

(가학피학증)으로 뛰어들고 있다.

세상 물정에 밝고 공허한 사회적 이론가들(예를 들면 리차드 플로리다)에게 끌려 들어간 "창의적 계급"은 물론 "신경제"와 "정보 초고속도로"에 치어 죽은 맞벌이 혹은 3인 노동 가정에 닥친 어느 때보다도 늘어난 노동 시간에 대해서는 별 언급이 없었다. 그리고 "창조적 계급"과 다른 많은 이들에게, 휴대전화와 블랙베리(캐나다에서 만든 스마트폰)는 노동과 여가 사이의 적대관계를 제거했다. 막스가 말한 모든 방면에서의 활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루 24시간 일주일 동안 일을 함으로써 말이다. 저항이 좌절된 준전체주의자들의 편입은 삶의 모든 방면에 이르렀다. 예전엔 창고 거리였던 곳에, 1930년대 식량배급을 기다리며 늘어선 노동자들의 사진으로 실내를 장식한 세련된 뉴욕 식당이 들어섰고 Barnes and Noble(2009년10월 당시 50개 주에 777개의 서점을 보유한 미국에서 가장 큰 도서공급회사로 대부분의 매장에 스타벅스 커피가 입점해 있다)은 독특한 카페나 독립적 서점들을 제거해버렸다. 서비스 인원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대형 쇼핑몰이 등장해, 사람들은 상품으로 그득한 굴 속 같은 통로에서 제품들에 대해 지식을 갖추도록 방치되었다; 가능한 모든 업체와 국가기관이, 아무 관계 없는 선택사항을 나열하고 지루한 기다림을 강요하는 끝없이 뻗어 있는 전화들로 접수계 직원들을 대체해 버렸으며, 동시에 그들이 걸으려는 "섬긴다"고 외치는 이들에게 무급 노동시간을 강요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했다; 블루스 앤 재즈에서 한 때 전복을 외치던 책들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모든 "저항" 문화는 Borders(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서회사의) 식탁에 제공되었다. 정보"라는 이름의 지나치게 극대화된 과장 선전 속에서 (마치 헤겔의 정신현상학이나 막스의 자본론 같은 책들이 탐 피터스의 가장 최근에 나온 경영매뉴얼과 나란히 "정보"를 구성하고 있다는 듯이), 도서관들은 수백만 권의 책들을 잘게 찢어 "축소시키고 전산화시켜버렸다. 항상 책과 심각한 사고를 싫어했던 교만한 실리콘밸리 CEO들과 광고 담당자들은 새천년의 "종이 없는" 경제를 떠벌렸다.

수백만의 "중간 관리직" (분명 어떤 사회적 중요성도 채우지 못 하는)이 하이테크를 통해 규모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사라졌고 직업을 잃어버린 이들은 "신 경제"를 노래하는 합창에 뒤 덮인 채 재활용된 주변부의 망각 속으로 사라졌다. 대학들은 "자유주의" 교육을 그들의 "고객들"을 위한 확대된 직업적 훈련으로 개조했고, 낭마가 된 과거 인간성의 잔재들을 "모든 것은 부패한다"는 후기 근대 해체주의자 룸펜인텔리겐치아(Lumpenintelligentsia-지식층에 속하면서 실직한 사람)의 만트라(mantras-모토)에 넘겨주었는데, 이들은 자신의(너무 실질적이라 논쟁의 여지가 없는) 부패를 바로 역사 속의 보편적 해방 운동, 즉 IN이 영감을 얻은 혁명에 투영하는 데 있어 전문가들이다. 그러한 사상적 부패는 미국 사회 기반 시설 즉 하수도, 지하철, 거리와 포장도로, 다리, 뉴올리언즈 제방 혹은 아파트 건물과 같은 "구 경제"의 가속화된 부패로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게 하는 데 유용했다. 아마도 이 전반적인 사상적 성형술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은 MBA(경영학 석사)와 컴퓨터 괴짜와 투자은행가의 출현이었을 것이다. 이 인물들은 1960년대 풍토에서는 문화적 영웅들이나 "혁명론자들" 못지않게 광범위하게 욕을 먹고 비웃음을 받는 대상들이었기 때문이다. 잊혀진 "탄데 정신이 팔린 교수" 즉, 여전히 (어떤 경우) 과거 (그리고 지금은 사라진) 인본주의의 기미를 풍기는 교수는 세련되고 적당히 햇볕에 그을리고 냉소적인 "급진적" 후기 근대 문학 이론가들에 의해 대체되었고, 이 이론가들은 재직권을 향한 개인적인 정보망을 구축한 채 계속해서 이런저런 회의에 참석했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 노동자들을 위해 지어진 소박한 주택과 마을은, 1970년대 후반 맞벌이 수입에 아이는 없는 여피 계층이 내부 도시를 다시 장악해가면서, 과거의 문화(한 때 그들이 자신들의 거주지를 건널 수 있게 해 주었던 생기 넘치는 거리의 삶이었지만 이제는 그 솔직함마저 손상되어 버린 문화)를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가운데 수리되었다(더 문제가 되는 것은, 1950년대 전

형적인 미국 노동계급 가족이 수입의 15%를 주택에 썼다면 오늘날은 보통 전체 수입의 평균 50%를 쓴다는 사실이다. 이 새로운 분배는 또한 회상에 대한 거대한 전쟁을 수반했다. 이는 아우슈비츠를 테마공원으로 만들자는 제안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1934년 일어난 총파업의 위대한 전투지를 쇼핑물로 바꾸자는 제안에까지 이르렀다. 1950년대 급진적 부두노동자들은 샌프란시스코 북부 해변이나 뉴욕 White Horse Tavern(1880년 문을 연 술집으로 부두노동자들이 주로 이용했으나 1950-60년대에는 작가나 예술가들이 주로 이용하며 보헤미아 문학으로 유명하다. 지금은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이다)의 보헤미아 문학과 뒤섞여버렸다. 그러나 오늘날 컨테이너로 그득한 항구는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 수는 과거 1/10에 불과해 여피족의 과거 발상지와 가장 가까운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멍한 노동자들의 유사성을 상상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자본주의가, 초기 축적을 통해, 항상 자본주의 이전 사회구조의 전리품과 파괴에 부분적으로 의지해 생존했던 것과 꼭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시대의 부르주와 문화는 자본주의 이전 시대의 문화지층에 의지해왔었다(예를 들면, 유럽 귀족사회에 대한 모방 관계). 자본은 스스로 투자한 만큼 건지지 못 하게 되면서, 1970년대 후반 이래로 사회적 재생산 토대를 스스로 먹여치우는 동시에 후기 근대 니힐리스트와 해체주의자, 푸코(후기 구조주의자), 에드워드 사이드(서양에서 바라보는 동양주의를 비판한 '오리엔탈리즘'으로 세계학자들에게 각인된 인물로 문학과 비평 등 문화 각 분야에 큰 영향을 끼쳤고 팔레스타인의 '돌아갈 권리'를 주장하기도 한 인물)와 자크 데리다(프랑스 해체주의의 창시자)의 추종자들에 의해 퍼진 사상적 에볼라 바이러스 속에 한 때는 해방적이었던 문화를 먹여치워버리는 끔찍한 식제를 감행했다.

마스가 오래 전 말했다시피 "매 시기를 지배하는 사상은 지배 계급의 사상이다."

VIII. 계급 재편성과 그 적들: 세계 노동계급에 대항하기 위한 포르투알레그레(Porto Alegre-브라질 남부 주도 이름, 행복한 항구라는 뜻으로 몇몇 NGO들이 발기인이 된 세계 포럼이 열린 장소), NGOs 그리고 사회적 세계 포럼(the World Social Forum)

이러한 문화적 공격은 다른 한 쪽에 반드시 정치적 공세를 병행해왔다. 막시즘을 거부하는 좌파들은 새로운 국면의 축적을 위해 자본의 형태를 재형성하는 데 거둬 필수적인 존재들이었다. 푸루동과 그가 150년간 자본주의 틀 내에서 노동자 주도로 운영된 회사에 끼친 영향력을 기억하기만 하면 된다. 혹은 현 시대에 더 가까운 것으로 사민주의, 스탈리니즘 그리고 1945년 후기 케인스식 복지국가의 초석이 된, 노동계층의 지배를 주장한 레이버리즘(그리고 심지어 초창기 그것을 위조한 무솔리니의 파시즘)을 떠올려보면 된다.

그러나 1950년대와 1960년대 많은 좌파들이 그들의 희망(서구에서 노동계급이 명백한 퇴조를 보이던 기간 동안)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에서 낭만화 된 게릴라 운동으로 변경해 결국 그 결과에 크게 실망하고 무엇보다도 1960년대와 70년대 유럽과 미국에서 벌어진 노동계급의 분출에 의해 역풍을 맞게 되었듯이, 1980년대와 90년대의 박력을 사회 운동으로 변환하고자 하는 태도가, 급진적으로 변형된 세계적 정황 속에서, 유사한 퇴조기로부터 성장하고 있다. 세계 노동계급(그리고 단지 부차적으로 사회 운동)은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21세기의 긍정적인 어떤 미래든 열어 줄 수 있는 열쇠를 지니고 있다. 최근 수십 년간 제3 세계 지역에 출현해 온 새롭게 형성된 노동계급은 당연히, 다음 번 노동계급의 폭발은 마지막 폭발이 내전 기간 동안 나타났던 것과 같지 않았던 것처럼, 그 마지막 것과도 같지 않으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폭발이 없는 사회 운동은, 지금까지 라틴아메리카에서 그랬듯이, 단지 새롭게 재건된 자본주의 국가의 부속물이 될 것이다. 아마도 차베스의 베네수엘라나 심지어 룰라의 브라질이 그 실례가 되겠다.

만약 세계 자본주의가 현 위기로부터 빠져나와 실행가능한 축적의 틀을 재건해낸다면, 다수의 새로운 사회 운동-인종, 민족적 배경, 성, 선택적 성적 취향, 에너지 그리고 환경 문제를 둘러싸고 형성된 정체성 정치학(개인의 주요한 관심과 협력 관계는 인종민족종교성에 기초하여 만들어진다는 정치학) 계급이라는 내용에는 적대적인-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다. 사회적 세계 포럼과 그 보단 작은 규모의 회의들에서 벌어지는 논쟁의 불길은 주로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를 목표로 하고 있을 뿐 자본주의를 겨냥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세계적인 케인즈 학파 조지프 스티글리츠(Stiglitz-미국 경제학자), 삭스(Sachs), 조지 소로스(Soros-20세기 최고의 펀드메니저로 꼽히는 인물), 폴 크루그먼(Krugman-국제무역이론에서 기존의 비교우위론을 대신 신무역이론을 제시하였고, 1990년대 아시아 개발국의 금융위기를 예견하여 주목을 끈 미국 경제학자) 등, 이들의 전임자 케인즈가 그랬던 것처럼 노동계급과 그 잠재적인 동맹을 대가로 미래 자본주의 개편 재형성에 선도주자로 나선 이들을 겨냥하고 있지도 않다. 사회적 세계 포럼 속에서 "세계적 정당성"을 지지하는 전형적인 인물들 중에는 스탈리니스트 피델 카스트로, 석유 페루주의자(대중 연합주의자) 휴고 차베스, 혹은 전 크메르 루즈(1975-79년까지 캄보디아를 통치하고 대량 학살한 급진 공산주의 혁명 단체) 찬미자인 사미르 아민(이집트 출신의 경제학자, 전통적 사회과학-경제학의 서구중심주의를 비판하고, 제3세계에 주축을 둔 마르크스주의 이론의 재구축 주장) 등이 포함된다. 그러한 "진보세력"의 한 옹호자는 최근 그리고 전형적으로 다음과 같이 썼다:

"...진보세력의 과제는 여전히 '수정주의적 개혁'과 '반 수정주의' 의제를 내건 개혁 사이의 차이를 정립하는 것이다. 후자는 탈상품화를 압박하는 관대한 사회 정책과, 자본이 통제하되 민주적으로 금융을 통제하고 궁극적으로는 생산 그 자체가 통제를 하도록 허용하는 내부 지향적인 산업적 전략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만약 그러한 강령 속에 "자본 통제"와 "민주적 금융 통제"가 들어 있다면, "탈상품화"가 얼마만큼이나 실제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아해질 수밖에 없다. 상품 생산은 자본과 금융 확장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회 운동이 라틴아메리카보다 더 두드러지거나 성공적인 곳도 없다. 새로운 대중 연합주의가 최근 몇 년 동안 상승국면에 있기 때문이다. 롤라는 이러한 경향에 있어 틀림없는 선구자이다. 브라질 노동자당을 초기에 사회 운동으로 이끌었으며, 이제 그는 ...실망스러운 ... (이미 예견됐었지만) 모습으로 브라질을 통치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피케테로(피케트 시위를 주된 정치 행위로 삼고 있는 정치 집단)는 2001년 12월 정부를 전복시켰으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데 (John Holloway-피케테로에 영향력을 끼친 사회과학자이자 철학자로 반 국제화 운동 등에 관여-의 주장에 속도를 맞추느라) 실패한 후 우익과 좌익으로 쪼개졌다. 현재 우익은 고도로 정치화된 재조직 (그리고 대중 연합주의자들의) 정부를 위한 노동 후생과 복지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다.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대통령)는 새로운 합법 정부를 위해 2003년 (국유 재산의 함축적 의미는 잠시 보류한 채) 천연 자원의 사유화를 중지시킨 사회 운동의 추진력을 이용하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 가운데 오늘날까지 가장 정교화 된 발전을 보이는 것은 휴고 차베스의 베네수엘라 "21세기 사회주의"로, 국가 중심부에 주둔하고 있는 용병들과 쿠바의 조언자들로 완성되었다. 그는 석유로 거둔 토지 대여 수익을 재원으로,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들 중 하나인 페루(1968-1975)식 군사 모델을 새로운 형식으로 실현시키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국가 간섭주의가 사회 운동을 기초로 재구축되고 있으며, 더 이상은 실용적이지 않은 과거의 권위적 국가 간섭주의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의 페론, 브라질의 바르가스 같은 독재자)를 대체해 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팡파레와 함께 나란히, 새로운 노동자 투

쟁이 라틴아메리카에서 출현해왔다. 2006년, 와하카(Oaxaca-멕시코 남부의 주) 봉기는 교사연합에 의해 시작돼 재빨리 도시 반란으로 전환되어 몇 개월 간 급진적 "의회주의자" 원리를 전면에 부각시켰다. 또한 그 해의 부정 선거 후 대중들이 몇 주 동안 멕시코 시티 변화가를 접수했던 것과 어느 정도 때를 같이 해, 대중들의 장악은 대선 패배 후 시달리던 로페즈 오브라도르의 중도좌파 민주혁명당(left-bourgeois party - PRD)을 훌쩍 넘어 섰다. 에콰도르와 페루에서는 총파업이 일어났다. 베네수엘라에서도 차베스에 대한 열광(베네수엘라 대중들 보다는 해외의 응원단장들이 훨씬 더 차베스에 대해 열광하지만)과는 어울리지 않게 몇 건의 전형적인 파업이 일어났다. 아르헨티나에서는 2001-2년 피켓테로(앞서 언급한 그들의 결점에도 불구하고)와 그들이 이전부터 발전시켜 온 공장을 넘어서 창외적 투쟁 방법이, 잠깐이나마 대중 연합주의자들의 국가를 실각시켰다. 그들이 더 이상은 투쟁을 진전시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전까지이긴 하지만 말이다. 라틴아메리카의 이러한 사회적 동요에 대한 관점은 또한 미국에도 스며들었다. 그 결과 2007년과 2010년 노동절에 라틴계 이주민들이 집결하기도 했다.

사회 운동 이론가들은, 노동력이 너무나 원자화되고 임시화되고 분산되어 더 이상 "조직화된 노동"은 단일한 세력이 될 수 없다고 거듭 되풀이하고 있다.

IN은 "조직화된 노동"에 조금도 집착하지 않는다. 총 노동 계급에 몰두하려는 것이다. 노동 계급에서 새로운 사회적 운동으로 강조점을 변경시키려한 역사적인 배경을 절대 간과하지 않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한 패턴은 브라질(1978-83), 폴란드(1980-81) 그리고 한국(1987-1990)에서처럼 반복해서 등장해왔다. 일종의 "구식" 산업화의 정점에 있을 때(오늘날 "대량 생산 노동자"라 일컫는 이들도 있다) 불법 파업들이 터져 나왔고, 중요한 승리를 거두었다가, 자본가들의 뒤 이은 역공으로 너무나도 익숙한 아웃소싱, 임시고용, 그리고 탈산업화의 지겨운 과정을 거

쳐 그 열기가 사그라 들었다. 1983년 브라질에서는 CUT(주요 노동조합 연맹, 롤라의 금속연맹을 포함한)는 그러한 파업의 명성을 등에 업었다. 2000년까지, CUT는 거의 사회복지 업무로 전환되어, 해고 노동자들에게 축소된 공장 입구 주변에서 과일가판대를 시작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 무토지 운동(os sim-terra 포르투갈어로 불러 지기 때문)이, 일단 약간의 토지를 얻고 나면 조금씩 그 수가 줄어드는 반복적 농민 문제와 함께 거친 억압에 직면하여 중요한 성공을 거두어 왔다. 남한에서는 1980년대 후반 파업의 물결이 NGO의 확산, "평화 활동가" 그리고 "시민 사회"에 대한 수다로 대체되었다.

새로운 사회 운동은 1980년대 초반 등장해 세계 노동 계급에 대한 자본의 이러한 거센 역공으로 생겨난 공백을 메웠다. 딱 한 가지 전형적인 예를 들자면, 이탈리아의 피아트(FIAT)는 당시 대형 토리노 공장을, 훨씬 더 적은 수의 노동자들로 같거나 더 많은 수의 자동차를 생산하며 작은 마을로 퍼져있는 소공장 생산체계로 변환하는 과정에 수십억 달러를 썼다. 1970년대 후반 투쟁의 물결은 그렇게 중단되었다. 그것은 거의 한 시대의 한 방법론이 될 수도 있다. 자본은 계속 자본으로 존재하기 위해 사회를 파괴할 준비가 되어 있다.

최근 몇 년간, 라틴아메리카에 덧붙여, 제3 세계 주변에서 인상적인 파업의 파고가 존재해왔다(방글라데시와 이집트의 섬유 파업, 터키의 TEKEL-담배회사 파업, 베트남 총파업, 인도 구르가온의 투쟁, 1988년 수하르토를 전복시킬 당시 인도네시아 노동 계급의 활약, 사유화나 임금 삭탈을 포함 중국에서 1년간 일어난 7만 건의 "사건들"). 아웃소싱, 임시직화와 임시노동은 분명 고전적인 그리고 비교적 안정적인 1980년 이전의 블루칼라 프롤레타리아의 경계를 불분명하게 해왔다. 그들의 조건이 어떠하든, 중국 인도 브라질 혹은 남아시아 운동 속에서 블루칼라 노동자들은, 최근 몇 십 년 동안 자본 축적에 이용되어왔던 구 소비에트 블록의 노동자들은 말할 것도 없

이, 이미 앞으로 나타날 프롤레타리아의 다음 공격의 일부이다.

IX. 요약 그리고 강령

단결을 모색하는 반대세력의 밀물에 직면해, 즉각적인 서툰 대결과 억압이 밀물의 파고를 더 끌어올리게 될까 두려운 가운데, 최근의 자본은 1920년 공장 점거에 직면한 이탈리아 산업주의자들의 전략과 전술을 재발견해왔다: 팔짱 끼고 기다리기. 2002년 아르헨티나 혹은 2006년 와하카에서처럼 혹은 - 좀 더 작은 규모로는 - 2009년 남한 쌍용자동차 공장 77일 점거 당시처럼, 반란에 대한 자본가들과 국가의 기본적인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너희들이 공장, 마을, 도시를 접수해? 좋다. 이제 너희들 스스로 그것을 운영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1919년 1월 영국 수상 로이드 조지와 영국노동조합협의회(TUC) 대표들 사이에 벌어진 유사한 회의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 TUC는 어떤 것도 접수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반란의 움직임이 그러한 도전에 맞설 만큼 상승하지 못 할 경우, 냉정을 잃게 되고, 인내는 고갈되고, 직업적 좌파들은 마이크를 붙잡고, 사람들은 얼마나 민주적이든 상관없이 끝없는 회의에 피곤해지고(이러한 모든 흐름은 정부가 거대한 반격의 순간을 기다리는 동안 정치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억압에 의해 촉진된다) 그리고 운동은 괴멸된다. 이러한 최근의 사례들 속에서 (1920년 이탈리아와는 다른), 거대한 유혈사태는 반란이 진압된 후 필수적이지 않았다(선택적으로 치명적인 억압이 뒤따르지 않았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지만). 오히려 중요한 것은, "강령적으로 무장된" 전투부대 없이, 투쟁은 결코 저절로 결전을 향한 준비에 집중될 수 없으리라는 점, "다른 사회 체제"(굳이 대중적으로 표현하자면)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 없이, 그 투쟁은 종종 불발된 채 서서히 사라져버린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초기 상승 국면 즉 투쟁이 점점 거세질 것 같은 초기에 나타나는 "자발적 행위"의 종종 중요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엘리트 통치- 부르주와에 의해서든 혹은 그칠 줄 모르는 회의에 누구보다 오래 남아 새벽 2시에 그들의 안전을 놓고 투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직업적 좌파에 의해서든-에 대한 광범위한 대안이 부재하다는 점은 "반동적"이든 "진보적"이든 항상 계급 사회의 기초가 되어 왔다. 수동성은, 자발적이든 유도되었든, 항상 "관료정치"의 시녀이다. 그리고 우리의 관점에서, 그러한 패배에 대한 최상의 해결 방법은 다른 "사회 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강령적 관점에 대한 가능한 한 가장 광범위한 선전이다. 그리고 그러한 지식을 노동 계급의 권력을 향해 가는 길에 실질적으로 시험해 보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모든 계급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노동 계급이 지배적 계급이 되도록 돕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1. 60년대/70년대 (브라질, 폴란드, 한국 같은 곳에서 확산된) 저항이 있은 후 자본은 프롤레타리아가 집중된 중심부를 해체하려는 반의식적 반대전술을 구사하느라 부산해왔다. 그 과정에서 가능한 많은 새로운 원자화되고 임시화되고 분산된 임노동 인구를 양산해왔으며 그 결과 1인 수입 가정,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직업, 복지 수당, 안정적 주택, 다음 세대를 위한 (얼마나 속물적이든 상관없이) 교육과 "포부"는 심지어 기억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2. 이는 자본의 금융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것은 '정상적인' 자본 축적이 아니다. 이는 물질에 기반을 둔 사회적 재생산을 파괴하고 있고 이 파괴 과정 속에는 노동력과 생산 수단 (사회기반시설과 자연을 포함한) 모두가 그 대상이다.
3. 이러한 발전은, (막스 관점의) 가치가 이미 60년대/70년대의 위기 속에서 수명을 다 했으며 세계적으로 적당한 속도의 이익을 재건하기 위해 거대한 역행을 수행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자본의

역행은 출자(debt-for-equity) 개편과 합병 및 획득에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생산과 재생산에서 일어나고 있다

4. 강령적 문제는 분명 과거 대량 생산 공장들을 예전과 같이 재구축하자는 내용은 될 수 없다. 아무도 조립 라인을 그리워하지 않으며,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생산과 소비는 이미 "사회적" 공간을 충분히 파괴해 왔다. 50년대부터 70년대 파업운동의 독창성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자주 지적해 왔듯이, 대부분의 좌파들(나 자신을 포함해)은 공장 노동자를 노동자로 이론화한 것이지, 공장 노동이 그룬트리세(Grundrisse) 같은 "소비에서 만큼이나 생산에 있어서도 모든 방면의 활동" 즉 공산주의에 부응한다는 논리를 깨기 위한 노력을 할 때 이들이 선도적인 세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량 생산이 우리가 이제껏 보아온 어떤 것보다도 계급의식과 계급행동에 훨씬 더 근접한 무언가를 생산하는 듯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또한 2차 세계 대전 후기의 과거 "사회적 계약"에 대한 파기가 또한 보수주의를 깬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 당시의 보수주의는 하나의 직업, 동일한 헌신 등과 연계되어 구축되었고, 하나의 공장, 하나의 산업 속에서 틀림없이 연대감은 촉진된 만큼 억제됐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프랑스와 이탈리아 같은 몇몇 국가들에서, 젊은이들의 노동 계급 운동을 유발했다. 이들은 그들의 부모님들이 누렸던 안정성을 결코 가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은 이러한 불안정한 유동성을 이용해 전 도시를 넘나드는 나르는 피켓(flying picket) 운동을 구축했고, 이 운동은 전 도시에서 하나의 대공장 혹은 산업을 반대하는 데 집중되었다.

5. 한 "헤겔주의 마시스트"의 조망, 즉 현실적인 시각에 따르면, 세계 노동 계급의 현실성은

가치 생산을 뛰어 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세계 노동 계급의 현재의 잠재력이다. 그것이 60년대/70년대 이후로, 그리고 사실상 20세기 초 이래로 자본이 대항해 싸워왔던 현실성이다. 그것이 오늘날 투쟁의 참된 틀을 결정한다. 스티글리츠(Stiglitz)- 삭스(Sachs) 등 케인주의의 영감을 받고, 새로운 사회 운동 위에 기반을 둔 이들은, 1914-1945년의 과도기적 위기로부터 나온 자본주의를 재조직했던 케인즈의 정확한 현대판이다.

6. 우리의 임무는 최근의 혼돈 너머에 놓여 있는 그 긍정적이 힘이 지닌 모든 함의들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의 투쟁 속에 있는 미세한 길들 어디에서 그 잠재력이 부상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파리 지역의 교외 젊은이들은 일상적으로 기차에 무료 탑승해 도시 경계를 넘나든다. 그리고 요금을 건어야 하는 역무원과 물리적으로 충돌한다. 대중교통 무료 이용 캠페인은 그러한 요소를 결합할 수 있을 것이며, 역무원들을 중요한 "경찰" 역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일상적인 많은 요금수납원들에게도 똑 같은 사례를 들려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례는 그들에게 어디에서 프롤레타리아가 교외 프롤레타리아에게 저항하게 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단 한 가지 예일 뿐이다.

결론적으로 따르는 것은 이제 핵심적인 국가에서 일어날, 그리고 바라건 데 신속히 전 세계로 번질 성공적인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첫 백 일"을 위한 강령이다. 우리는 마스의 관점에 따른 "가치" 생산이 빠르게 해체될 잠재성을 여기에 그리고자 한다. 물론 이는 단지 시험적이며 토론과 비평에 열려있다:

- ① 제3 세계를 상향 평등화하기 위한 기술 프로 그램 이행
- ② 세계 소득을 위한 최소한의 발판 창출

- ③ 석유- 자동차- 제철 복합 해체 후 대중 운송수단과 기차로의 변환
- ④ 군대, 경찰, 국가 관료정치, 기업 관료주의, 감옥, FIRE (금융-보험-부동산), 안전 수비대, 안부(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하는 각종 첩보 집단), 회계원과 요급수납원 등 과도하게 팽창된 집단들에 대한 폐지
- ⑤ 4번을 통해 자유로워진 거대한 대중 노동력을 이용한 노동시간 급감
- ⑥ 대체 에너지를 둘러싼 프로그램 철폐: (장기적으로, 가능하다면) 핵융합 발전, 태양, 바람 등 포함
- ⑦ "더 많으나 더 적은" 원리를 가능한 많은 것에 적용 (예: 위성 전화가 제 3 세계의 육로를 이용한 기술을 대신하고, 싼 CD가 비싼 스테레오 시스템을 대체한다 등등)
- ⑧ 북아메리카와 유럽의 식량 자원을 사용하고 제 3 세계의 농업을 개발하는 데 목표를 둔 세계 협동농업 프로그램
- ⑨ 산업적 농업적 생산의 통합과 대도시 인구 집중 해체. 이것은 교외와 시골을 없애고 도시를 급격하게 변형시켜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에너지 소비에 대해 갖는 의미는 매우 두드러진다.
- ⑩ 자동화될 수 있는 모든 힘든 노동의 자동화

- ⑪ 연합 생산자들이 작성한 국제적이고 지역적인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컴퓨 터와 교육에 대한 접근권의 일반화
- ⑫ 건강과 치아 무료 관리
- ⑬ 교육의 생산 및 재생산과의 통합
- ⑭ 근래 들어 비생산적인 부문과 연계된 R&D를 생산적인 사용이 되도록 전환
- ⑮ 크게 증가한 노동 생산성은 가능한 빠르게 가능한 많은 기초 상품을 무료 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수급과 회계를 맡고 있는 노동자들을 자유롭게 할 것
- ⑯ 노동시간의 국제적인 단축
- ⑰ 집중화 되어야 할 모든 것들(예를 들면 세계적 천연 자원의 사용)의 집중화 와 탈집중화 되어야 할 모든 것들(예를 들면 일반적인 틀 내에서의 노동 과정에 대한 통제)의 탈집중화
- ⑱ 대기를 다루는 방법, 가장 중요하게는 3번과 6번을 통해 화석연료 사용으로부터 점진적으로 벗어나기

다시 한 번, 지금 단계에서, 그러한 강령적인 문제는 단지 제언적일 뿐이며 논쟁을 위해 광범위하게 열려 있다. 또한 "조직의 형태"가 아닌 가치를 넘어서 세계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속에서 "인간의 능력은 결과적으로 배가" 되기 때문이다.

피델 카스트로의 편지

“자본주의 시스템은 미국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은 체제이다”

얼마 전 미국의 시사 잡지 <디 아틀랜틱>의 '제프리 골드버그'라는 기자가 피델 카스트로와 인터뷰를 했다. 그리고 쓴 그의 기사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다름 아니라 인터뷰에서 카스트로가 '현재 쿠바 사회주의 시스템은 실패했다'는 시인을 했으며, 또한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구 소련에게 '핵 미사일 사용을 촉구했던 것을 후회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카스트로는 지난 9월 10일 자신의 글을 통해 진실을 밝혔다. 전문을 번역했다. <편집자>



우리는 인류 역사의 예외적인 순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곧 이란의 핵 사찰 그리고 전력 생산과 의료적 목적을 위한 우라늄 사용에 대한 유엔의 요구 사항을 이란이 수용하도록 안전보장이사회(실제로는 미국에 의해 규정된 것이지만)에 의해 주어진 시한이 다가 오고 있다. 유일하게 입증 가능한 것은, 오직 핵무기 생산에 대한 두려움 뿐이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가정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아주 민감한 사안에 대해, 미국과 그의 서방 동조자들, 그 중 유엔 거부권을 갖고 있으며, 핵 보유국인 프랑스와 영국은 가장 부유하고 잘 정비된 자본가들의 지지아래 풍부한 석유 자원국이자 무슬림 국가인 이란에 점점 강도높은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거러되는 상품을 조사하는 것부터 강력한 경제 제재까지, 결국 이란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것들이다.

난 이와 같은 상황이 내포하는 심각한 위험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전쟁은 순식간에 핵전쟁으로 비화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전 인류에게 치명적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은 이 같은 위험에 대해 어떤 홍보나 감성주의적 호소를 하지 않았다. 단순히 이러한 심각한 위험을 경고함으로써 세계 여론을 몰아가고 싶은 것 뿐이다. 마치 위험을 경고하기만 하면 모든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말이다. 그리고, 적어도 세계의 주요 언론에서는 다루지조차 않았던 한 가지 문제에 대한 관심을 모으는 데는 성공한 것 같다.

그것이 바로 나로 하여금 이 글을 쓰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물론 (9월) 7일과 (9월) 9일이라는 날짜와 겹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7일은, 유엔 안보리의 요구사항을 이란이 수용할 지에 대한 90일의 검토 시한이 끝나는 날이고, 9일은 지난 6월 9일 안보리를 통과한 추가 제재 결의안에 따른 3개월의 최후통첩의 시한이 되는 날이다.

아직까지는, 단지 IAEA 국제 원자력 기구 의장이며 양키들의 하수인인 일본인 유끼와 야마노의 비공식적인 성명서만 나왔을 뿐이다. 야마노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붓고 은근 슬쩍 뒤로 빠지기까지 했다.

야마노의 이러한 성명서에 대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경멸하듯 응대했는데 스페인 통신 EFE에 따르면, 이러한 대변인 논평은 다음과 같이 해석되었다. "우리들의 친구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지역에서 새로운 군사적 모험을 할 상태에 있지 않으며, 또한 '이란은 어떠한 군사적 침략에 대해서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그의 성명은 분명 미국의 지원 아래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의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는 쿠바의 리더인 피델 카스트로를 지칭한 것이었다"고.

이러한 주제들에 대한 소식들은 여기 저기 늘어나기 마련이고, 다른 꽤 중요한 반향들과 함께 섞이게 마련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미국 아틀랜틱 시사 잡지의 기자 제프리 골드버그는 나와 오랜 시간 인터뷰 한 부분을 기사에 실었다. 그리고 그 중 몇 가지 중요한 논점은 나와 인터뷰 이전부터 이미 계획되었던 것들이다.

"내가 아바나에 있는 동안 여러 이상한 일들이 있었다. <...> - 그는 말하고 있다 - 그러나 가장 이상했던 것 중의 하나는 바로 피델 카스트로의 자기 성찰의 수준이었다. <...>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구 소련의 후르시초프에게 미국에 미사일을 발사하라고 요구했던 것은 분명 자신의 실수였음을 인정한 것은 내게 상당히 놀라운 일이었다 <...>". 물론 그는 내게 이 주제를 꺼냈고, 나에게 질문을 했다.

문자화된 우리의 인터뷰는 그 기사의 첫 부분에 다루고 있는데, 질문은 이렇게 변해있었다: “나는 피델에게 질문했다: 당신이 구 소련에게 미국에 미사일 공격이라도 하라고 한 사실은 어쩌면 당시의 정황을 볼 때 당연할 수도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도 같은 생각하는가? 피델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럴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었다.”

나는 그에게 이 말의 내용을 분명하고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고, 글로도 남겨져 있다. “... 만약 미국이 당시 구 소련의 핵 무기를 가지고 있는 쿠바를 침공하게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1941년 6월 22일 독일과 유럽의 모든 동원된 군사력이 소련을 공격했던 것처럼 말이다.”

이 주제에 대한 짧은 암시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독자들에게 공개된 그 다음 부분에서도 독자들은 내가 이야기한 “만약 미국이 소련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쿠바를 침공 한다면”, 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감지하지 못 할 것이다. 즉 그와 같은 경우에 적으로 하여금 첫 총구를 들이 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더욱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사실, 즉 당시 변덕스럽기 그지 없던 당시 구 소련 대통령의 배신, 즉 중요한 군사 기밀을 미국에 넘겨버렸던 사실에 대한 나의 냉소적 대답도 알아듣지 못했다.

또한 골드버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했다: “나는 피델에게 쿠바의 모델이 다른 나라로 전파할 만한 것이라고 믿느냐고 물었다”. 물론 이 질문에는 쿠바는 혁명을 전파하고 있다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내포하고 있었다. 이에 나는 대답했다 “쿠바의 모델은 더 이상 우리에게 조차도 작동되지 않는다”. 나는 그에게 단순히 담백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가 당시 동석 했던 CFR의 분석 전문가인 줄리아 스웨잉의 말까지 인용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주석을 달아서 해석했는지 보고 있노라면 참으로 재미있다. 그런데, 문제는 쿠바 모델에 대한 미국 두 기자의 해석은 나의 대답과 정 반대라는 것이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나의 생각은 위기가 위기를 가져오고, 그 심화 정도가 더욱 전 지구적이며 반복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은 이제 미국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더 이상 작동되지 않으며,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쿠바 같은 사회주의 나라에 어떻게 그와 같은 시스템이 가능하단 것인가?

내가 골드버그와 인터뷰 했다는 사실을 들은 많은 아랍 친구들은 걱정을 하며 그를 “시온주의 최대 옹호자”라며 메시지를 보내 왔다. 이런 사실들을 미루어 볼 때 이미 많은 혼란스러움이 있을 것으로 짐작한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 내 생각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나의 분명한 생각들은 나의 ‘333가지 성찰’에 잘 드러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우연인지, 최근 26개의 글들에는 환경과 핵 문제를 둘러싼 위급함 위험에 관해서 특별하게 다루고 있다.

이에 나는, 간략한 요약을 해야 할 것 같다.

나는 항상 홀로코스트를 비판해 오고 있다. “카이로에서의 오바마의 연설”, “숨어서 할퀴기”, “한 전문가의 의견” 등의 제목의 글을 통해 분명한 나의 의견을 표현한 바 있다.

난 결코 유대인 민중들의 적인 적이 없었다. 오히려 난 약 2세기에 걸쳐 온갖 탄압과 억압에서도 저항 할 수 있었던 그들의 능력에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시대 최고의 지성인 칼 맑스, 아인슈타인도 유대민족이 아니었던가. 그들은 우리의 나라에서, 그리고 모든 곳에서 탄압 받고 억압 받았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이야기 하고자 하려는 것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믿음으로 인해 탄압받고 박해 받은 유일한 사람들은 아니다. 약 12세기에 걸쳐 아랍인

들은 자신들의 믿음으로 인해 유럽의 기독교인들에게 억압받고 박해 받았다. 그들은 기독교가 고대 로마의 공식종교가 되기 이전 최초의 기독교인들이었던 사람들이다. 역사는 있는 그대로 인정되어야 하며 기억되어야 한다. 비극적인 현실들과 잔혹한 전쟁들조차도 말이다. 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했고, 지금 우리가 인류가 처한 위험에 대해서 충분한 근거를 들어가며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것은 나쁜 우리 인류에게는 자살 행위와 같은 큰 위험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만약 이란과의 전쟁이 더해 진다면, 그것이 아무리 빠른 것일지라도, 미국은 포기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어떻게 15억의 아랍인들을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는 것인가.

진정한 혁명가에게 평화를 지키는 것이 정의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 없이는 인류와 사회의 진정한 의미는 사라지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골드버그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그는 자신의 의견과 논점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내 논쟁을 유도할 줄 아는 훌륭한 기자임이 분명하다. 말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달하고 또한 해석을 한다.

더 이상 우리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우리가 이야기 나누었던 민감한 주제들에 대해 존중할 것이다. 그리고 난 그의 앞으로의 글을 기대해 볼 것이다.

여러 곳에서 들려오는 최근의 소식들이 내가 이와 같은 글을 통해 그 기사에 대한 부연설명을 하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야기 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얼마 전 내가 발표한 "전략적 반격"이라는 제목의 책에 잘 드러나 있다.



세계의 모든 인류는 평화를 추구할 권리가 있고 지구의 자연과 자원을 누리면 행복할 권리가 있다.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의 민중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수백만의 어린이와 여성들과 빼만 앙상하게 남은 남성들이 음식, 물 그리고 약품의 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다. 중동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더욱 처참할 뿐이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쫓겨나고, 그들의 집은 현대화된 끔찍한 기계들로 파괴되어 가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폭격의 희생자들이 되어가며 그들을 제거하기 위한 온갖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과 팔레스타인 일반 민중들에게 가해진 폭격으로 수많은 가족들이 학살을 당하는 끔찍한 상황들, 몇 년 간의 이라크 전쟁으로 죽어간 이라크 민중들까지. 미국 대통령에 의해 주도된 이와 같은 갈등의 결과로 이미 백만 이상의 목숨들이 희생되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집시 추방에 관한 뉴스도 있다. 또 하나의 인종 홀로코스로, 프랑스의 극우파들의 잔인함에 의해 이미 프랑스에서 약 7천명 이상의 희생자들이 만들어 졌다. 이와 동시에 재벌들의 일자리는 줄이고 동시에 은퇴할 권리는 제한하는 것에 맞선 프랑스인들의 역동적인 항의도 주목할 만하다.

미국에서는 플로리다의 자신의 교회에서 코란의 경전을 불태우겠다고 나선 한 목사의 소식이 전해져 온다. 양키나 유럽의 군 장교들조차도 이와 같은 소식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있는 군인들의 안전에 대한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 공영 텔레비전의 유명한 사설가 마르티네스는 이러한 정신 나간 행동들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고 어제 9일, 목요일 결국 소식 하나가 전해졌다. 결국 그 목사는 그 '행사'를 감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더욱 주목할 만 한 것은 그 목사를 설득하기 위해 FBI의 요원들이 무슨 말을 했을 지가 더욱 흥미롭다. 언론 소로 끝나 버렸던 것이다. 점점 쇠약해져 가는 제국에서만 볼 수 있는 그들만의 고유한 것 즉 카오스 그 자체였던 것이다.

이 글을 읽어준 모든 독자에게
감사드립니다.

피델 2010년 9월 10일



출처: <http://www.cubadebate.cu/fidel-castro-ruz/2010/09/10/mensaje-en-la-presentacion-de-la-contraoferensiva-estrategica/>